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이 성 룰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볼프의 《괴테 가곡집》 작품 연구
-서정시에 의한 5곡(No.24, 26, 27, 28, 29)을
중심으로-

2016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반주학과
고영휘

볼프의 《괴테 가곡집》 작품 연구
-서정시에 의한 5곡(No.24, 26, 27, 28, 29)을
중심으로-

이 성 루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반주학과

고 영 휘

인 준 서

고영휘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6년 5월

심사위원장 이 혜 진 (인)

심 사 위 원 이 성 름 (인)

심 사 위 원 지 형 주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후고 볼프(Hugo Filipp Jakob Wolf, 1860-1903)는 독일의 대표적인 후기 낭만주의 작곡가로서 250여곡의 예술 가곡을 작곡하였다. 볼프는 아이헨도르프(Joseph von Eichendorff, 1788-1857), 뢰리케(Eduard Mörike, 1840-1875),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 1749-1821) 등이 쓴 시를 가곡집으로 작곡하여 독일 예술 가곡의 정점을 이루었다. 볼프의 가곡집 중에서 《괴테 가곡집》은 1888-1889년 사이에 작곡된 가곡집으로 볼프의 다양한 작곡 어법을 엿볼 수 있다. 《괴테 가곡집》에 수록된 시는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시, 『서동시집』에 나오는 해학적인 시와 괴테가 실제 연인이었던 마리안네 폰 빌머(Marianne von Willemer, 1784 -1860)와 주고받았던 시 그리고 신화에 나오는 신이나 영웅에 대한 시 등 매우 다양하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괴테의 생애와 그의 주요 작품과 함께 볼프의 생애와 대표 가곡집, 그리고 대표 가곡집에서 나타나는 볼프 가곡의 일반적 특징을 살펴보았고, 《괴테 가곡집》에서 서정시에 의해 작곡된 5곡(No.24, 26, 27, 28, 29)을 발췌하여 시와 음악을 분석하였다. 이 곡들은 독일어의 억양과 리듬을 표현하기 위해 낭창법과 반음계 진행을 사용하였고, 시어를 강조하기 위해 리듬을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반주형 자체는 통일감을 주었지만 시에서 나타나는 배경, 분위기 그리고 사람이나 사물의 특징을 표현하기 위해 조성의 잦은 변화, 반음계 진행 그리고 불협화음 등을 사용하여 전통적인 조성 체계 틀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독창적인 음악세계를 구축하였다.

볼프는 모든 음악적 요소들을 통하여 시와 음악의 완전한 결합을 이루고자 하였고, 전통 기법에 기반을 두었으나 새로운 어법을 통해 독일 가곡을 크게 발전시켰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 론	1
II. 본 론	3
1. 괴테의 생애와 작품	3
2. 볼프의 생애와 작품	10
3. 볼프의 가곡	14
4. 《괴테 가곡집》의 구성 및 출처	28
5. 악곡 분석	39
1) ‘꽃의 인사’	39
2) ‘매정한 아가씨’	45
3) ‘마음이 풀린 아가씨’	58
4) ‘한 해 내내 봄’	70
5) ‘아나크레온의 무덤’	80
III. 결 론	88
참고문헌	
ABSTRACT(영문초록)	

표 목차

〈표 1〉 유년 시기의 괴테 작품	3
〈표 2〉 질풍노도 시기의 괴테 작품	4
〈표 3〉 고전주의 시기의 괴테 작품	6
〈표 4〉 만년 시기의 괴테 작품	8
〈표 5〉 볼프의 작품	12
〈표 6〉 《아이헨도르프 가곡집》 구성	14
〈표 7〉 《뫼리케 가곡집》 구성	15
〈표 8〉 《스페인 가곡집》 구성	18
〈표 9〉 《이탈리아 가곡집》 제 1권 구성	21
〈표 10〉 《이탈리아 가곡집》 제 2권 구성	22
〈표 11〉 《괴테 가곡집》 구성	28
〈표 12〉 볼프의 《괴테 가곡집》 중 오케스트라 편곡 작품	30
〈표 13〉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 시 번호와 인물	31
〈표 14〉 ‘꽃의 인사’ 각운의 운율	39
〈표 15〉 ‘꽃의 인사’ 의 구성	40
〈표 16〉 ‘매정한 아가씨’ 각운의 운율	46
〈표 17〉 ‘매정한 아가씨’ 의 구성	47
〈표 18〉 ‘마음이 풀린 아가씨’ 각운의 운율	59
〈표 19〉 ‘마음이 풀린 아가씨’ 의 구성	60
〈표 20〉 ‘한 해 내내 봄’ 각운의 운율	71
〈표 21〉 ‘한 해 내내 봄’ 의 구성	72
〈표 22〉 ‘아나크레온의 무덤’ 각운의 운율	81
〈표 23〉 ‘아나크레온의 무덤’ 의 구성	81

악보 목차

〈악보 1〉 ‘꽃의 인사’ 반주형	41
〈악보 2〉 ‘꽃의 인사’ 마디 1-8	42
〈악보 3〉 ‘꽃의 인사’ 마디 9-15	43
〈악보 4〉 ‘꽃의 인사’ 마디 15-18	44
〈악보 5〉 ‘매정한 아가씨’ 반주형 ㉠	48
〈악보 6〉 ‘매정한 아가씨’ 반주형 ㉡	48
〈악보 7〉 ‘매정한 아가씨’ 반주형 ㉢	48
〈악보 8〉 ‘매정한 아가씨’ 마디 1-12	50
〈악보 9〉 ‘매정한 아가씨’ 마디 13-21	52
〈악보 10〉 ‘매정한 아가씨’ 마디 22-33	54
〈악보 11〉 ‘매정한 아가씨’ 마디 34-41	55
〈악보 12〉 ‘매정한 아가씨’ 마디 41-52	56
〈악보 13〉 ‘매정한 아가씨’ 마디 53-61 선율부	57
〈악보 14〉 ‘마음이 풀린 아가씨’ 반주형 ㉣	61
〈악보 15〉 ‘마음이 풀린 아가씨’ 반주형 ㉤	61
〈악보 16〉 ‘마음이 풀린 아가씨’ 반주형 ㉥	61
〈악보 17〉 ‘마음이 풀린 아가씨’ 마디 1-4	62
〈악보 18〉 ‘마음이 풀린 아가씨’ 마디 5-25	63
〈악보 19〉 ‘마음이 풀린 아가씨’ 마디 25-36	64
〈악보 20〉 ‘마음이 풀린 아가씨’ 마디 37-53	66
〈악보 21〉 ‘마음이 풀린 아가씨’ 마디 53-66	67
〈악보 22〉 ‘마음이 풀린 아가씨’ 마디 63-87 선율부	68
〈악보 23〉 ‘마음이 풀린 아가씨’ 마디 88-101 선율부	68

〈악보 24〉 ‘마음이 풀린 아가씨’ 마디 99-102	69
〈악보 25〉 ‘한 해 내내 봄’ 반주형	73
〈악보 26〉 ‘한 해 내내 봄’ 마디 1-20	74
〈악보 27〉 ‘한 해 내내 봄’ 마디 21-31	75
〈악보 28〉 ‘한 해 내내 봄’ 마디 32-44	77
〈악보 29〉 ‘한 해 내내 봄’ 마디 45-52	78
〈악보 30〉 ‘한 해 내내 봄’ 마디 68-83	79
〈악보 31〉 ‘아나크레온의 무덤’ 마디 1-2	82
〈악보 32〉 ‘아나크레온의 무덤’ 마디 3-6	83
〈악보 33〉 ‘아나크레온의 무덤’ 마디 7-12	85
〈악보 34〉 ‘아나크레온의 무덤’ 마디 13-18	86
〈악보 35〉 ‘아나크레온의 무덤’ 마디 18-21	87

I. 서론

볼프는 19세기 후반 독일 낭만주의 음악을 대표하는 작곡가이다. 그는 음악 뿐 아니라 문학에도 조예가 깊어 가곡을 작곡 할 때 신중하게 시를 선택하였고, 원시의 고유한 특징과 운율을 음악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하였다. 볼프는 전 생애에 걸쳐 총 250여곡의 가곡을 작곡하였고, 《괴테 가곡집》(*Gedichte von Johann Wolfgang von Goethe*)은 소재의 다양성과 그 소재에 따른 작곡 어법의 적절한 사용을 통해 완성된 걸작이다.

볼프의 《괴테 가곡집》에 대한 기존 연구는 윤상희(2006)¹⁾, 강나영(2010)²⁾, 허려화(2010)³⁾, 이가람(2013)⁴⁾ 등의 국내 석사 논문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논문이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와 『서동시집』에 나오는 곡들로 한정되어 있고, 서정시에 의한 가곡 연구는 허려화(2010)의 국내 석사 논문이 유일하다.

본 논문에서는 위의 논문들을 참고하여 볼프의 대표 가곡집과 볼프 가곡의 특징을 정리하고 《괴테 가곡집》에 속해 있는 51곡의 구성과 시의 출처를 정리한다. 또한 《괴테 가곡집》 중 졸업 연주에서 연주한 괴테의 서정시에 의해 작곡된 ‘꽃의 인사’(Blumengruß), ‘매정한 아가씨’(Die Spröde), ‘마음이 풀린 아가씨’(Die Bekehrte), ‘한 해 내내 봄’(Früling übers Jahr), ‘아나크레온의 무덤’(Anakreons Grab)을 분석 연구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첫 번째, 괴테와 볼프의 생애와 주요 특징을 문헌학적 연구 방법을 통해 정리한다. 두 번째, 시 분석을 통해 괴테 시의 내용과 운율을 문학

-
- 1) 윤상희, “H. Wolf의 Mignon I, II, III과 Kennst du das Land에 나타난 시와 음악의 관계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2) 강나영, “볼프의 가곡 「미농의 노래」 분석·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3) 허려화, “Hugo Wolf 예술가곡의 분석 및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4) 이가람, “괴테 시에 의한 Hugo Wolf의 세 개 가곡 Suleika에 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적으로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음악학적 연구 방법으로 악곡의 음악적 특징을 살펴보고 시와 음악의 결합에서 나타난 특징을 살펴본다.

후고 볼프의 가곡은 현재 국내 성악연주의 주요한 레퍼토리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음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주제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괴테 가곡집》은 볼프의 다른 가곡집들에 비해 곡의 규모가 크고 악곡의 주제와 음악 스타일이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현재 국내에서는 전반적인 연구나 연주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괴테 가곡집》에 사용된 괴테의 시의 출처와 구성을 정리하고 국내에서 많이 연구가 되지 않은 곡을 연구 분석하여 향후 후속 연구에 도움을 주고 연주자들이 악곡 구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해 보다 훌륭한 연주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II. 본 론

1. 괴테의 생애와 작품

세계 문학사상 최고의 자리를 굳히고 있는 독일의 대문호 괴테는 1749년 8월 28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부유한 상층가정의 아들로 태어나 많은 교양을 쌓으면서 유년 시절을 보냈다. 괴테는 1765년에 법률 공부를 하러 라이프치히로 가지만, 법률보다는 문학과 미술에 열중하였다. 라이프치히에서 괴테는 아네테 쾨텐 쇠코프(Annette Köthen Schönkopf, 1746-1810)와 첫사랑을 경험하였다. 그녀와의 첫사랑은 괴테의 최초의 희곡 『애인의 변덕』(*Die Laune des Verliebten*, 1768)을 탄생시켰다.⁵⁾

〈표 1〉 유년 시기의 괴테 작품

장 르	제 목	연 도
시집	Annette (아네테 서)	1766
	Das Leipziger Liederbuch(라이프치히 노래책)	1769
희곡	Die Laune des Verliebten (연인의 변덕)	1768
	Eid Mitschuldigen (공범자들)	1769

1770년에 괴테는 다시 법률을 공부하기 위해 스트라스부르크로 떠났다. 괴테는 그 곳에서 전공인 법률뿐 아니라 화학, 의학, 해부학, 문학, 철학, 미술, 동식물학, 기상학 그리고 색채학 등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였다. 이 시기에 괴테는 신진 평론가 헤르더(Johann Gottfried von Herder, 1744-1803)를 만나게 되었고 그로부터 문학과 예술에 대해 많은 영감과 자극을 받았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은 감정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질풍노도 운동(Sturm und Drang)을 여는

5) 한국 괴테 협회, 『괴테 연구』(서울: 문학과 지성사, 1983), 14.

계기가 되었다. 또한 괴테는 프리드리케 브리온(Friederike Brion, 1752-1813) 과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그녀와의 사랑은 『환영과 이별』 (*Willkommen und Abschied*), 『오월의 노래』 (*Mailed*) 등의 서정시를 탄생시켰다. 이 시기에 괴테가 쓴 서정시는 표현면에서 독일 서정시의 새로운 시범이 되었다.⁶⁾

또한 괴테는 서간체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Die Leiden des jungen Werthers*, 1774)을 출간하였다. 베르테르가 친구의 약혼녀 로테를 사랑하였으나 결국 이뤄지지 못해 권총으로 자살을 한다는 내용이고, 이 소설로 인하여 전 유럽의 독자들은 베르테르를 흉내 내어, 자살을 시도하고, 심지어 유부녀를 사랑하는 것마저 모방하였다. 이 작품으로 괴테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가 되었고 이 작품은 질풍노도 시기의 최고의 작품이라는 찬사를 받는다.⁷⁾

이 외에도 괴테는 특권층에 의해 몰락해가는 기존 사회질서와 새롭게 등장한 사회질서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형상화한 『프로메테우스』 (*Prometheus*, 1773), 16세기 농민 봉기가 일어났을 때 지도적인 역할을 한 프랑켄(Franken)의 기사 괴츠에 대한 내용을 담은 역사극 『괴츠』 (*Götz von Berlichingen*, 1773), 『가니메트』 (*Ganymed*, 1774)등의 작품을 썼다.⁸⁾

<표 2> 질풍노도 시기의 괴테 작품

장 르	제 목	연 도
시	Heidenröslein (들장미)	1770
	Wandrer's Nachtlid (나그네의 밤노래)	1772
	Wandrer's Sturmlid (방랑자의 폭풍의 노래)	
	Der Ewige Jud (영원한 유대인)	1773
	Ganymed (가니메트)	
	Mahomets Gesang (마호메트 찬가)	
	Prometheus (프로메테우스)	

6) 고익환, 『독일문학사』 (대구: 대구대학교 출판부, 1996), 98.

7) Richard Friedenthal, 『괴테의 생애와 시대』, 광복록 역 (서울: 평민사, 1985), 189.

8) 김성곤, 『독일문학사』 (서울: 도서출판 경진, 2009), 93.

	Satyros (사티로스)	1774
	An Belinden (벨린덴에게)	1775
	Auf dem See (호수 위에서)	
	Lilis Park (릴리의 공원)	
	Neue Liebe, neues Leben (새로운 사랑, 새로운 삶)	
	Wonne der Wehmut (슬픔 속의 기쁨)	
시집	Sesenheimer Lieder (제젠하임의 노래)	1771
희곡	Götz von Berlichingen (괴츠)	1773
	Clavigo (클라비고)	1774
	Stella (스텔라)	1775
소설	Die Leiden des jungen Werthers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1774

괴테는 1775년 11월 바이마르로 이주하여 약 10년 동안 바이마르 궁정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였다. 행정관으로서 활동하면서 그는 창작에 전념할 시간이 별로 없었던 그는 광산을 감독하면서 자연과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 시기에 그는 샤를롯테 폰 슈타인 부인(Charlotte von Stein, 1742-1827)과 교제를 하게 되는데, 그녀와의 교제를 통하여 괴테는 격정적이고 충동적인 감정을 가라앉히고 감성과 이성의 조화를 이뤘다.⁹⁾ 『사냥꾼의 밤 노래』(Jäger Abendlied), 『달에게』(An den Mond) 등과 첫 번째 발라드¹⁰⁾ 『어부』(Der Fischer), 발라드 『마왕』(Erlkönig) 등이 이 시기에 집필되었다.

괴테의 생애와 문학에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이탈리아 여행이라고 할 수 있다. 괴테는 이탈리아에서 고대 예술을 접함으로서 고전주의 예술의 형식과 내용을 습득하였다.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괴테는 인간의 고결한 마음과 의지를 통해 구원이 이뤄지는 내용의 『타우리스섬의 이피게니에』(Iphigenie auf Tauris, 1787)와 르네상스 시대에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타소(Torquato Tasso, 1544-1595)의 삶을 괴테 자신의 문학세계

9) 강두식, 『괴테의 생애와 문학』(서울: 박영사, 1981), 138.

10) 발라드(Ballade): 중세 유럽에서 형성된 정형시의 하나로 자유로운 형식의 짧은 서사시 즉, '이야기가 있는 시'이다.

에 투영한 『타소』(Tasso, 1789)를 집필하였다. 이 두 희곡은 고전주의를 꽃피우게 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¹¹⁾

이탈리아 여행에서 돌아온 괴테는 문학가 쉴러(Johann Christoph Friedrich von Schiller, 1759-1805)를 만나게 되었다. 이 두 사람은 서로 성향과 견해가 달랐지만, 서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 조언을 구하면서 쉴러가 죽을 때 까지 약 10년간 문학사상 유례없는 친교를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협력하였다. 괴테는 쉴러의 도움으로 오랫동안 정체 상태에 있던 『파우스트』를 재집필하고,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 시대』(Wilhelm Meisters Lehrjahre, 1796)를 완성하였다.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는 주로 민족이나 왕의 운명을 노래한 재래의 서사 문학과는 달리 개인의 운명, 그리고 인간의 성장과정을 다양한 측면에서 제시함으로써 근대 소설을 확립하였다.¹²⁾ 그 외에 괴테는 쉴러와 서로의 장단점을 시정하고 비평하면서 많은 발라드를 썼으며, 발라드를 문학의 한 장르로 자리 잡게 하였다.¹³⁾

〈표 3〉 고전주의 시기의 괴테 작품

장르	제목	연도
시	Jägers Abendlied (사냥꾼의 밤노래)	1776
	An den Mond (달에게)	1778
	Der Fischer (어부)	
	Erlkönig (마왕)	1780
	Ilmenau (일메나우)	1783
	Römische Elegien (로마의 비가)	1788
	Meeresstille (바다의 고요)	1795
	Nähe des Geliebten (연인 곁에서)	
	Der Gott und die Bajadere (신과 인도의 무희)	1797
	Der Schatzgräber (보물파는 자)	

11) 한국 괴테 협회, 『괴테 연구』, 15.

12) 고익환, 『독일문학사』, 117.

13) 전영애, 『괴테와 발라데』(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7), 3.

	Die Braut von Korinth (코린트의 신부)	
	Hermann un Dorothea (헤르만과 도로테아)	
	Xenien (크세니엔/쉴러와의 공동작)	
희곡	Die Geschwister (남매)	1776
	Egmont (에그몬트)	1787
	Iphigenie auf Tauris (타우리스섬의 이피게니에)	
	Tasso (타소)	1789
	Der Bürgergeneral (시민 장군)	1793
	Die Aufgeregten (격분한 사람들)	
소설	Reinecke Fuchs (여우 라이네케)	1793
	Unterhaltungen deutscher Augewanderten (독일 피난민들의 대화)	1795
	Wilhelm Meisters Lehrjahre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	1796
과학논문	Metamorphose der Pflanzen (식물 변태론)	1790

1805년 쉴러의 사망으로 인해 고전주의 시대가 끝이 나게 되었다. 이 후 말년의 괴테는 『파우스트 1부』(*Faust*, 1808)를 마무리하고 자서전을 쓰기 시작하였다. 또한 괴테는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에도 심혈을 기울여 생물학, 지질학과 같은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소설 『색채론』(*Zur Farbenlehre*, 1810)을 집필하였다.

이 무렵 괴테는 60세에 가까운 나이였으나 여러 번 열렬한 사랑을 체험하였다. 18세인 민나 헤르츨리프(Minna Herzlieb, 1789-1865)와의 절망적인 연정은 『친화력』(*Die Wahlverwandtschaften*, 1809)을 낳았고, 마리안네 폰 빌레머(Marianne von Willemer, 1784 -1860)와의 정신적인 연애는 『서동시집』(*West-östlicher Divan*, 1819)의 ‘줄라이카의 서’(*Buch Suleika*)가 되었고, 울리케 폰 레베츠포프(Ulrike von Levetzow, 1804-1899)에 대한 짝사랑에서 『마리엔바트의 비가』(*Marienbarder Elegia*, 1823)가 탄생하였다.¹⁴⁾

특히 『서동시집』은 페르시아 시인 하피스(Hafis, 1300-1389)의 서정시

14) 이상기, 『괴테, 불멸의 사랑』(서울: 도서출판 푸른숲, 1999), 165.

를 알게 된 괴테가 동양과 서양의 조화를 지향하며 마리안네 폰 빌머와의 사랑의 체험을 읊은 괴테의 대작이다.¹⁵⁾

1786년 이탈리아를 여행하면서 지인들에게 보낸 편지와 일기 그리고 메모를 담아 자서전 『이탈리아 여행기』 (*Die Italienische Reise*, 1829)를 집필하였고, 괴테의 자아 성찰과 인간적인 면모를 담고 있는 자서전 『시와 진실』 (*Dichtung und Wahrheit*, 1831)을 집필하였다.¹⁶⁾

후기 작품 중에 괴테가 가장 정열을 쏟았던 작품은 『빌헬름 마이스터의 편력 시대』 (*Wilhelm Meisters Wanderjahre*, 1829)와 『파우스트 제2부』 (*Faust II*, 1831)이며, 특히 후자의 작품은 괴테의 전 사상과 예술을 집대성한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다.¹⁷⁾ 괴테는 『파우스트』를 완성하고 이듬해 1832년 3월 22일, 8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표 4〉 만년 시기의 괴테 작품

장르	제목	연도
시	Anakreons Grab (아나크레온의 무덤)	1806
	Mächtiges Überraschen (엄청난 놀라움)	1807
	Marienbarder Elegie (마리엔바트의 비가)	1823
	Chinesisch Deutsche Jahres und Tageszeiten (중국과 독일 세시기)	1827
희곡	Faust I (파우스트 1부)	1806
	Faust II (파우스트 2부)	1831
소설	Die Wahlverwandtschaften (친화력)	1809
	Zur Farbenlehre (색채론)	1810
	Wilhelm Meisters Wanderjahre (빌헬름 마이스터의 방랑시대)	1829
자서전	Italienische Reise (이탈리아 여행기)	1829
	Dichtung und Wahrheit (시와 진실)	1831
잡지	Über Kunst und Altertum (예술과 고대)	1816-1832

15) Johann Wolfgang von Goethe, 『서동 시집』, 김용민 역 (서울: 민음사, 2007), 367-375.

16) 이가람, “괴테 시에 의한 Hugo Wolf의 세 개 가곡 Suleika에 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5.

17) 한국 괴테 협회, 『괴테 연구』, 16.

괴테는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반까지 활동했던 시인이자 희곡작가이자 광물학자이자 행정가였고 그의 작품은 여러 음악가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특히, 그의 시는 많은 작품들을 낳았고 독일 가곡사에 엄청난 영향력을 주었다. 괴테의 시 중 186편이 음악 작품화 되었으며, 가곡의 수는 2600여 곡에 달한다.¹⁸⁾

괴테의 서정시가 특별한 이유는 진솔함에 있다. 어느 시기에서든 자신이 경험하고 느낀 것을 글로 담아냈다. 괴테는 긴 생애 동안 수많은 서정시를 썼는데, 우선, 유년부터 말년까지 꾸준히 써온 연시가 있다. 괴테가 누구를 만났고 사랑하였는지가 화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명시들이 탄생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괴테의 세계관을 담은 시가 있다. 세상과 정면으로 부딪히며 괴테 자신이 겪은 사건들을 시로 풀어냈는데, 여기서의 학자, 정치가, 자연과학자 괴테의 모습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서정시 외에도 괴테는 역사적으로 한 획을 그은 발라드를 자신만의 필체로 써내려갔다.¹⁹⁾

이러한 시들 뿐 아니라 『파우스트』, 『에그몬트』 같은 희곡뿐만 아니라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와 같은 소설은 가곡, 오페라 그리고 무대 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으로 새롭게 탄생되었다. ²⁰⁾

18) 김아영, “괴테의 시 「그 나라를 아시나요」에 의한 베토벤, 슈베르트, 리스트, 슈만, 볼프의 가곡 비교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1.

19) 서석연, 『질풍노도시대의 괴테의 서정시 연구』 (서울: 삼광출판사, 1987), 189.

20) 강의숙, “F. Schubert와 F. Mendelssohn의 가곡 〈Suleika〉 예술적 비교 분석,”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10.

2. 볼프의 생애와 작품

독일 후기 낭만주의 가곡의 대표적 작곡가 후고 볼프(Hugo Filipp Jakob Wolf, 1860 -1903)는 1860년 3월 3일, 현재는 유고슬라비아의 영토인 빈디슈그레츠(Windischgratz)에서 태어났다. 볼프는 음악애호가였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 바이올린, 작곡 등 다양한 교육을 받았다.²¹⁾

볼프는 1875년에 음악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빈 음악원에 입학하여 화성과 피아노를 공부하였고, 오페라와 콘서트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다. 그 해, 볼프는 바그너(Richard Wagner, 1813-1883)의 오페라 《탄호이저》(*Tannhäuser*, 1845)와 《로엔그린》(*Lohengrin*, 1850)을 본 후 바그너에 심취하였다. 바그너에 대한 볼프의 관심은 그의 작곡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²²⁾

1877년 볼프는 불성실한 태도 때문에 빈 음악원에서 퇴학을 당했지만 음악 공부를 계속하였고, 음악 뿐 아니라 문학이나 연극에 관한 지식을 계속 쌓아나갔다.

이전까지는, 미완성 작품이 대부분이었던 볼프는 1878년 영감이 샘솟아 하이네(Heinrich Heine, 1797-1856)와 레나우(Nikolaus Lenau, 1820-1850)의 시에 의한 20개의 가곡을 거의 2주 만에 작곡하였다. 그러나 이곡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출판을 하지 못하였다.

볼프의 친구들은 그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지휘자리를 추천하여 1881년 잘츠부르크 시립 가극장의 부지휘자가 되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사직하였다.

1884년부터 약3년 동안 볼프는 주간지 “빈 살롱 신문(*Wiener Salonblatt*)”

21) 진희숙, 『음악사를 움직인 100인』 (서울: 청아출판사, 2013), 459.

22) 박형진, “아이헨도르프 시에 의한 볼프 가곡의 반주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4.

의 음악평론가로 활동하였다. 그는 자신이 존경하는 음악가인 베토벤, 모차르트, 슈베르트, 리스트, 바그너 등 에게는 적극적인 찬사를 하였고 반 바그너파 작곡가들과 브람스에게는 날카로운 비난을 쏟아냈다.²³⁾

1887년 말 친구의 도움으로 《여성을 위한 6개의 가곡》(*Sechs Lieder für eine Frauenstimme*)과 《쉐펠, 뫼리케, 괴테 그리고 케르너의 시에 의한 6개의 가곡집》(*Sechs Gedichte von Scheffel, Mörike, Goethe und Kerner*)을 엮은 볼프의 첫 번째 가곡집이 출판되었다.²⁴⁾ 이에 용기를 얻은 볼프는 평론 활동을 그만두고 가곡 작곡에 매진하였고, 1888년부터 약 2년간 《뫼리케 가곡집》(*Gedichte von Eduard Mörike*), 《아이헨도르프 가곡집》(*Gedichte von Joseph v. Eichendorff*), 《괴테 가곡집》(*Gedichte von Johann Wolfgang von Goethe*), 하이제(Paul Johann Ludwig von Heyse, 1830-1914)와 가이벨(Emanuel von Geibel, 1815-1884)이 번역한 스페인 시로 작곡한 《스페인 가곡집》(*Spanisches Liederbuch*), 하이제가 번역한 이탈리아 시로 작곡한 《이탈리아 가곡집 제1권》(*Italienische Liederbuch I*) 등 약 200곡 이상의 가곡을 작곡하였다.²⁵⁾

볼프는 수많은 가곡을 작곡 한 뒤, 영감의 고갈을 느껴 2년 동안 단 한 곡도 작곡하지 못했다. 바그너가 오페라로 성공하였듯이, 볼프도 오페라 작곡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있었다. 2년의 공백기를 거친 후 볼프는 오페라 《원님》(*Der Corregider*, 1895)을 완성하였고 오페라 완성에 힘을 얻어 30여 개의 가곡도 작곡하였다. 볼프의 오페라는 가곡에 특화 되어 있던 섬세한 작곡 기법으로 인해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²⁶⁾

1897년 볼프는 정신질환으로 잠시 요양원에서 지내다 퇴원하였다. 그러나 다

23) 『음악대사전』(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90), "볼프".

24) Eric Sams, "Wolf, Hugo" in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Vol.20, ed. Stanley Sadie (London: Macmillan Publishers Ltd, 1980), 470-481.

25) 홍세원, 『서양음악사』(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0), 529.

26) Carol Kimball, 『Song 하권』, 채은희 역(서울: 형설출판사, 2003), 143.

시 정신질환이 재발하여 입원 하였고 1903년 입원 중 사망하였다.

〈표 5〉 볼프의 작품²⁷⁾

장 르	작 품 명	작곡연도
교향곡	Scherzo and Finale (스케르초와 피날레)	1876-1877
	Penthesilea (펜테질레아)	1885
	Italian Serenade No.2 (이탈리아 세레나데 제2번)	1892
피아노곡	Variations, Op.2 (바리에이션, Op.2)	1875
	Piano Sonata, Op.8 (피아노 소나타, Op.8)	1876
	Rondo capriccioso, Op.15 (론도 카프리치오소, Op.15)	1876
	Humoreske (위모레스크)	1877
	Paraphrase on 'Die Walküre' ('발퀴레' 피아노 편곡)	ca.1880
	Paraphrase on 'Die Meistersinger von Nürnberg' (‘뉘른베르크의 명가수’ 피아노 편곡)	ca.1880
	Kanon (카논)	1882
현악곡	String Quartet (현악 4중주)	1878
	Intermezzo (간주곡)	1886
	Italian Serenade No.1 (이탈리아 세레나데 제1번)	1887
가곡집	Sechs Lieder für eine Frauenstimme (여성을 위한 6개의 가곡집)	1877-1882
	Sechs Gedichte von Scheffel, Mörike, Goethe und Kerner (쉐펠, 뢰리케, 괴테 그리고 케르너 시에 의한 6개의 가곡집)	1883-1887
	Gedichte von Joseph v. Eichendorff (아이헨도르프 가곡집)	1880-1888
	Gedichte von Eduard Mörike (뢰리케 가곡집)	1888
	Gedichte von J. W. v. Goethe (괴테 가곡집)	1888-1889
	Spanisches Liederbuch (스페인 가곡집)	1889-1890
	Alte Weisen: sechs Gedichte von Keller (켈러 시에 의한 6개의 가곡집)	1890
	Italienisches Liederbuch I (이탈리아 가곡집 제1권)	1890-1891
	Drei Gedichte von Robert Reinick 라이니크 시에 의한 3개의 가곡집	1888-1896

27) Sams, "Wolf, Hugo" 492-498.

	Vier Gedichte nach Heine, Shakespeare und Lord Byron 하이네, 셰익스피어 그리고 바이런 시에 의한 4개의 가곡집	1888-1896
	talienisches Liederbuch II (이탈리아 가곡집 제2권)	1896
	Drei Gedichte von Michelangelo 미켈란젤로 시에 의한 3개의 가곡집	1897
무대음악	Musik zu Ibsens Schauspiel 'Das Fest auf Solhaug' (입센의 부수음악 '졸하우그의 축제')	1890-1891
	Der Corregider (원님)	1895
	Manuel Venegas (마누엘 베네가스)	1897

3. 볼프의 가곡

1) 대표 가곡집

(1) 《아이헨도르프 가곡집》 (*Gedichte von Joseph v. Eichendorff*)

《아이헨도르프 가곡집》은 다른 가곡집에 비해 작곡 기간이 긴 편이다. 이 가곡집은 1880년에 2곡, 1886-1887년에 5곡 그리고 1888년에 13곡이 작곡되었다. 연스(Susan Youens)의 저서 『후고 볼프: 성악 음악』 (*Hugo Wolf: The Vocal Music*)에 의하면 볼프는 아이헨도르프의 시를 선택할 때 다른 작곡가들이 선택한 서정시, 자연에 관한 시가 아닌 아이헨도르프만의 해학적이고 풍자적인 특징이 잘 나타나 있는 인물들에 대한 시를 즐겨 사용했다고 한다.²⁸⁾

〈표 6〉 《아이헨도르프 가곡집》 구성²⁹⁾

작품번호	작품순서	곡명	조성	작곡연도
1	16	Der Freund (친구)	E	1888.9.26
2	12	Der Musikant (악사)	A	1888.9.22
3	8	Verschwiegene Liebe (조용한 사랑)	g	1888.8.31
4	18	Das Ständchen (소야곡)	D	1888.9.28
5	4	Der Soldat I (병사 1)	C	1887.3.7
6	3	Der Soldat II (병사 2)	c	1886.12.14
7	5	Die Zigenerin (집시처녀)	a	1887.3.19
8	7	Nachtzauber (밤의 힘)	F#	1887.5.24
9	9	Der Schreckenberger (함장)	G	1888.9.14
10	10	Der Glücksritter (행운을 노리는 모험가)	C	1888.9.16

28) Susan Youens, *Hugo Wolf: The Vocal Music*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93.

29) Sams, "Wolf, Hugo" 495.

11	19	Lieber alles (오히려 모든 것을)	G	1888.9.29
12	20	Heimweh (향수)	E b	1888.9.29
13	13	Der Scholar (학생)	a	1888.9.22
14	14	Der verzweifelte Liebhaber (의심스런 여인)	g	1888.9.23
15	15	Unfall (사고)	d	1888.9.25
16	17	Liebesglück (사랑의 축복)	E	1888.9.27
17	11	Seemanns Abschied (항해사의 이별)	F	1888.9.21
18	2	Erwartung (기다림)	E	1880.1.26
19	1	Die Nacht (밤)	f#	1880.2.3
20	6	Waldmädchen (숲속의 처녀)	G	1887.4.20

(2) ≪뫼리케 가곡집≫ (*Gedichte von Eduard Mörike*)

볼프는 뫼리케의 시에 영감을 받아 53개의 가곡을 작곡하였는데, 1888년 2월부터 5월까지 43곡을 작곡하였고 같은 해 10월 나머지 10곡을 작곡하였다. 이 가곡집은 볼프의 많은 가곡집 중에서 대중들에게 가장 사랑 받는 가곡집이다.

≪뫼리케 가곡집≫에 속해있는 뫼리케의 시는 밤, 꽃, 새벽, 황혼 등을 주제로 한 자연적인 시에서부터 요정, 귀신 등을 주제로 한 초자연적인 시 그리고 종교적인 시, 서정적인 시, 사랑을 주제로 한 시까지 매우 다양하다.³⁰⁾

<표 7> ≪뫼리케 가곡집≫ 구성³¹⁾

작품번호	작품순서	곡명	조성	작곡연도
1	12	Der Gensese an die Hoffnung (소생하는 희망)	f#/G b	1888.3.6
2	2	Der Knabe und das Immllein (소년과 작은 풀벌)	g/G	1888.2.22
3	4	Ein Stündlein Wohl vor Tag (새벽의 즐거운 한 때)	g	1888.2.22
4	3	Jägerlied (사냥꾼의 노래)	A	1888.2.22
5	1	Der Tambour (북치기)	E	1888.2.16
6	39	Er ist's (이젠 봄이다)	G	1888.5.5

30) Denis Stevens, 『성악문헌』, 대한음악저작연구회 역 (서울: 삼호출판사, 1986), 78.

31) Sams, "Wolf, Hugo" 494-495.

7	26	Das verlassene Mägdlein (버림받은 아가씨)	a	1888.3.24
8	25	Begegnung (만남)	E b	1888.3.22
9	6	Nimmersatte Liebe (무한한 사랑)	A b	1888.2.24
10	23	Fussreise (산책)	D	1888.3.21
11	33	An eine Äolsharfe (에올리안 하프에)	E	1888.4.15
12	19	Verborgtheit (은둔)	E b	1888.3.13
13	41	Im Frühling (봄에)	f#	1888.5.8
14	38	Agnes (아그네스)	f	1888.5.3
15	17	Auf einer Wanderung (방랑)	E b	1888.3.25
16	13	Elfenlied (요정의 노래)	F	1888.3.7
17	14	Der Gärtner (정원사)	D	1888.3.7
18	11	Zitronenfalter im April (4월의 노랑나비)	a/A	1888.3.6
19	34	Um Mitternacht (한밤중에)	c#	1888.4.20
20	35	Auf eine Chrisblume I (크리스트블루메에게 I)	D	1888.11.26
21	53	Auf eine Chrisblume II (크리스트블루메에게 II)	F#	1888.4.21
22	31	Seufzer (탄식)	e	1888.4.12
23	32	Auf ein altes Bild (옛 그림에 부쳐)	f#	1888.4.14
24	40	In der Frühe (새벽에)	d/D	1888.5.5
25	47	Schlafendes Jesuskind (잠자는 아기 예수)	F	1888.10.6
26	49	Karwoche (수난주간)	A b	1888.10.8
27	46	Zum Neuen Jahre (새해에)	A	1888.10.5
28	18	Gebet (기도)	E	1888.3.13
29	44	An den Schlaf (잠에 부쳐)	A b	1888.10.4
30	45	Neue Liebe (새로운 사랑)	B b	1888.10.4
31	48	Wo find ich Trost? (위안은 어디에?)	C	1888.10.6
32	52	An die Geliebte (사랑하는 이에게)	E b	1888.10.11
33	36	Peregrina I (페레그리나 I)	E b	1888.4.28
34	37	Peregrina II (페레그리나 II)	G b	1888.4.30
35	28	Frage und Antwort (문과 답)	A b	1888.3.29
36	29	Lebe wohl (안녕)	G b	1888.3.31
37	30	Heimweh (향수)	F	1888.4.1
38	9	Lied vom Winde (바람의 노래)	f#	1888.2.29
39	16	Denk es, o Seele! (생각해 보라 오 영혼이여)	d	1888.3.10
40	5	Der Jäger (사냥꾼)	g	1888.2.23
41	24	Rat einer Alten (늙은 여자의 충고)	e	1888.3.22

42	22	Erstes Liebeslied eines Mädchen (처녀의 첫 사랑의 노래)	A	1888.3.20
43	20	Lied eines Verliebten (사랑하는 사람의 노래)	b	1888.3.14
44	51	Der Feuerreiter (불의 기사)	b	1888.10.10
45	42	Nixe Binsefuss (갈대뿌리의 물의 요정)	a	1888.5.13
46	50	Gesang Weylas (와이라의 노래)	D b	1888.10.9
47	43	Die Geister am Mummelsee (뭉멜호의 요괴)	c#	1888.5.18
48	27	Storchenbotschaft (황새의 심부름)	g/B b	1888.3.27
49	8	Zur Warnung (훈계)	a	1888.2.25
50	7	Auftrag (명령)	F	1888.2.25
51	10	Bei einer Trauung (어느 혼례에서)	f	1888.3.1
52	21	Selbstgeständnis (고백)	F	1888.3.17
53	15	Abschied (이별)	c/B b	1888.3.8

(3) 《스페인 가곡집》 (*Spanisches Liederbuch*)

볼프는 1889년에서 1890년 사이에 하이제(Paul Heyse, 1830-1914)와 가이벨(Emanuel Geibel, 1815-1884)이 번역한 스페인 시에 44개의 가곡을 작곡하였다. 《스페인 가곡집》은 종교적인 시에 의한 가곡(Geistliche Lieder) 10개과 세속적인 시에 의한 가곡(Weltliche Lieder) 34개로 이루어져있다. 종교적인 가곡들은 대체로 단순하며 부드럽고, 세속적인 가곡들은 열정적이고 매우 화려하다.

《스페인 가곡집》은 볼프의 다른 가곡집들과는 다른 색채감을 볼 수 있고 정열적인 가곡들이 많이 들어있다. 볼프는 이 가곡집 안에서 스페인 리듬과 기교적인 성악 선율, 기타 모방 작법을 이용한 반주부를 통해 스페인적인 요소를 표현하였다.³²⁾

32) Carol Kimball, 『Song 하권』, 156.

〈표 8〉 《스페인 가곡집》³³⁾

작품번호	작품순서	곡명	조성	작곡연도
1	44	Nun bin ich dein (나는 주의 것/H)	F	1890.1.15
2	7	Die du Gott gebarst, du Reine (주는 우리의 구세주/H)	a	1889.11.5
3	6	Nun wandre, Maria (걸으시라 마리아/H)	e	1889.11.4
4	8	Die ihr schwebet (떠오르는 것들/G)	E	1889.11.5
5	23	Führ mich, Kind nach Bethlehem (나를 베들레헴으로 이끄시는 아기예수/H)	A	1889.12.15
6	26	Ach, des Knaben Augen (아, 그 소년의 눈/H)	F	1889.12.21
7	43	Mühevoll komm ich und beladen (슬픔으로 머리숙입니다/G)	g	1890.1.10
8	25	Ach, wie lang die Seele schlummert (오, 얼마나 잠들어 계시렵니까/G)	E _b	1889.12.19
9	17	Herr, was trägt der Boden hier (주여, 이 땅에 무엇이 싹트는 것일까요/H)	e	1889.11.24
10	24	Wunden trägst du mein Geliebter (십자가에 달리신 주께서 피 흘리고 계십니다/G)	b	1889.12.16
11	16	Klinge, klinge mein Pandero (나의 판데로야 올려라, 올려/G)	g	1889.11.20
12	12	In dem Schatten meiner Locken (내 곱슬머리의 그늘 아래서/H)	B _b	1889.11.17
13	10	Seltsam ist Juanas Weise (희한한 주안나의 방법/G)	g	1889.11.14
14	11	Treibe nur mit Lieben Spott (사랑스런 야유로만 행동하라/H)	g	1889.11.15
15	21	Auf dem grünen Balkon (초록베란다에서/H)	A	1889.12.12
16	4	Wenn du zu den Blumen gehst (당신이 꽃들에게 갈 때/H)	A	1889.11.1
17	1	Wer sein holdes Lieb verloren (사랑스런 애인을 잃은 자/G)	f _#	1889.10.28
18	2	Ich fuhr über Meer (나는 바다를 향해했다/H)	b	1889.10.31
19	10	Blindes Schauen, dunkle Leuchte (눈물 시선 어두운 등/H)	b	1889.11.26

33) Sams, "Wolf, Hugo" 496-497.

20	30	Eide, so die Liebe schwur (맹세들, 사랑이 그리 맹세했다/H)	b	1890.3.31
21	14	Herz, verzage nicht geschwind (심장이여 너무 빨리 죽지마라/H)	e	1889.11.19
22	15	Sagt, seid ihr es, feiner Herr (말해주세요, 당신입니까, 신사여/H)	G	1889.11.19
23	33	Mögen alle bösen Zungen (모두 나쁜 말을 하리라/G)	D	1890.4.3
24	3	Köpfchen, Köpfchen, nicht gewimmert (신음소리 내지 않는 머리아, 머리아/H)	B _b	1889.10.31
25	34	Sagt ihm, dass er zu mir komme (나에게 오도록 소녀에게 간청하세요/H)	b	1890.4.4
26	19	Bitt' ihn, o Mutter (어머니 그 소녀에게 간청하세요/H)	g	1889.11.26
27	41	Liebe mir im Busen zündet (달아오른 가슴속의 사랑/H)	a	1890.4.2
28	28	Schmerzliche Wonnen und wonnige Schmerzen (고통스러운 걱정과 걱정되는 고통/G)	A	1890.3.29
29	27	Trau nicht der Liebe (사랑을 믿지마라/H)	a	1890.3.28
30	29	Ach, im Maien wars (5월달에/H)	A	1890.3.30
31	5	Alle gingen, Herz, zur Ruh (모두가 갔고 마음은 쉰다/G)	F	1889.11.2
32	35	Dereinst, Dereinst, Gedanke mein (옛날 옛적에 나의 생각/G)	f	1890.4.11
33	36	Tief im Herzen trag ich Pein (내 가슴 깊이 고통이 있도다/G)	c	1890.4.12
34	37	Komm, o Tod, von Nacht umgeben (어둠으로 둘러싸인 죽음이여, 와라/G)	D _b	1890.4.14
35	38	Ob auch finstre Blicke glitten (어두운 눈빛들이 스친다/H)	b	1890.4.16
36	9	Bedeckt mich mit Blumen (나를 꽃으로 덮으소서/G)	A _b	1889.11.10
37	13	Und schläfst du, mein Mädchen (그리고 나의 소녀야 자는가/G)	E _b	1889.11.17
38	22	Sie blasen zum Abmarsch (그들은 퇴각의 나팔을 분다/H)	B _b	1889.12.13
39	42	Weint nicht, ihr Äuglein (눈들이여, 울지마라/H)	b	1890.3.29
40	20	Wer tat deinem Füsslein weh?	A	1889.12.5

		(누가 당신으 밭에 고통을 주는가?/G)		
41	32	Deine Mutter, süßes Kind (귀여운 아이야, 너의 어머니이다/H)	f#	1890.4.2
42	39	Da nur Leid und Leidenschaft (고통과 로맨틱만 있도다/H)	b	1890.4.20
43	40	Wehe der, die mir verstrickte (나를 방해하는 자는 조심하라/H)	a	1890.4.27
44	31	Geh, Geliebter, geh jetzt (나의 애인이여, 가라, 지금가라/G)	F#	1890.4.1

(H=Heyse, G=Geibel)

(4) 《이탈리아 가곡집》 (*Italienisches Liederbuch*)

볼프는 하이제가 번역한 이탈리아 시로 46개의 곡을 작곡하였다. 《이탈리아 가곡집》은 2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권은 22곡으로 1890년 9월에서 1891년 12월 사이에 작곡되었고, 2권은 24곡으로 1896년 3월부터 4월까지 약 한 달 동안 작곡되었다. 다른 가곡집을 작곡한 방식과는 다르게 1권과 2권 사이에 5년의 공백기가 있는데 볼프는 이 사이에 어떠한 가곡도 작곡하지 않았다. 1권과 2권 사이에 5년의 공백이 있으나 음악적 스타일과 표현 방법, 형식 등에서는 변화가 거의 없다.³⁴⁾

《이탈리아 가곡집》은 대부분이 소규모곡이고 연인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삼고 있다. 남성과 여성의 이야기로 나누어지는데, 남성은 부드럽고 열정적으로, 여성은 거만하고 냉소적으로 그려진다. 연주를 할 때도 여성 연주자와 남성 연주자가 같이 나와서 교대로 연주한다.³⁵⁾

34) 김혜연, “볼프의 〈이탈리아 가곡집〉에 여성적 성격의 분류에 따른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22.

35) 이지민, “Hugo Wolf의 「Italienisches Liedebuch」 중 5곡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8-9.

〈표 9〉 《이탈리아 가곡집》 제 1권 구성³⁶⁾

작품번호	작품순서	곡명	조성	작곡연도
1	16	Auch kleine Dinge (작은 일들도)	A	1891.12.9
2	1	Mir ward gesagt (저에게 들리기로는)	e	1890.9.25
3	2	Ihr seid die Allerschönste (당신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A b	1890.10.2
4	3	Gesegnet sei, durch den die Welt (복 되도다, 이 세상을 만드신 이여)	E b	1890.10.3
5	4	Selig ihr Blinden (복받은 맹인들아)	E b	1890.10.4
6	5	Wer rief dich denn? (누가 당신을 불렀나요?)	F	1890.11.13
7	6	Der Mond hat eine schwere Klag (달은 자신의 하소연을 한다)	e b	1890.11.13
8	7	Nun lass uns Frieden schliessen (이제 평화를 맺자)	E b	1890.11.14
9	8	Dass doch gemalt (너의 모든 자극들이 그려졌으면)	F	1891.11.29
10	9	Du denkst mit einem Fädchen mich zu fangen (너는 나를 실로 잡으려고 한다)	B b	1891.12.2
11	11	Wie lange schon war immer mein Verlangen (얼마나 오랫동안 나의 소원이었는가)	f	1891.12.4
12	14	Nein, junger Herr (안돼, 젊은이)	G	1891.12.7
13	15	Hoffärtig seid Ihr, schönes Kind (궁전에 자격이 있도다 아름다운 아이야)	f#	1891.12.8
14	13	Geselle, woll'n wir uns in Kutten hüllen (장인, 우리들의 양털을 선별하여 사다)	D	1891.12.5
15	10	Mein Liebster ist so klein (내 연인은 너무 작아)	F	1891.12.3
16	18	Ihr jungen Leute (젊은이들이여)	C	1891.12.11
17	12	Und willst du deinen Liebsten sterben sehen (너의 애인의 죽음을 보고 싶은가)	A b	1891.12.4
18	19	Heb auf dein blondes Haupt (너의 금발머리를 들어라)	A b	1891.12.12
19	21	Wir haben beide lange Zeit geschwiegen (우리 둘이 오랫동안 침묵하였다)	E b	1891.12.16
20	20	Mein Liebster singt am Haus (내 애인은 달빛 창가에서 노래 부르고)	g	1891.12.12

36)Sams, "Wolf, Hugo" 497-498.

21	22	Man sagt mir, deine Mutter (너의 어머니가 반대하는 것이 나에게 전해졌다)	a	1891.12.23
22	17	Ein Ständchen euch zu bringen (너희들이 나에게 가판대 하나를 주면)	C	1891.12.10

〈표 10〉 《이탈리아 가곡집》 제 2권 구성³⁷⁾

작품번호	작품순서	곡명	조성	작곡연도
1	1	Was für ein Lied soll dir gesungen werden? (어떤 노래를 듣고 싶은가)	B b	1896.4.30
2	2	Ich esse nun mein Brot (나는 빵을 이제 먹는다)	e _b /E _b	1896.3.25
3	3	Mein Liebster hat zu Tische (사랑하는 이가 식사에 나를 초대했네)	F	1896.3.26
4	4	Ich liess mir sagen (나에게 말하도록 허락했으면 나에게 전해졌다)	c	1896.3.28
5	5	Schon streckt' ich aus im Bett (벌써 나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A b	1896.3.29
6	6	Du sagst mir, dass ich keine Fürstin (너는 내가 귀족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E b	1896.3.30
7	9	Wohl kenn ich Euren Stand (당신의 상황을 나는 안다)	C	1896.4.9
8	24	Lass sie nur gehn (그녀를 가게 놔둬)	g	1896.4.31
9	10	Wie soll ich fröhlich sein (어떻게 내가 기쁠 수 있을까)	g	1896.4.12
10	15	Was soll der Zorn, mein Schatz (왜 화를 내는가 내 사랑아)	c	1896.4.20
11	12	Sterb ich, so hüllt in Blumen (내가 죽거든 꽃으로 덮어주거라)	A b	1896.4.13
12	8	Und steht Ihr früh am Morgen auf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거라)	E	1896.4.4
13	16	Benedeit die sei'ge Mutter (우리의 돌아가신 어머니를 축복하라)	E	1896.4.21
14	19	Wenn du, mein Liebster (내 사랑아, 당신 하늘에 오를 때)	G b	1896.4.24
15	7	Wie viele Zeit verlor ich		1896.4.2

37) Sams, "Wolf, Hugo" 498.

		(나는 시간을 얼마나 잃었는가!)		
16	14	Wenn du mich mit den Augen (당신이 나의 눈을 스치고 웃을 때)	G	1896.4.19
17	13	Gesegnet sei das Grün (녹색 식물들에게 축복을)	A	1896.4.13
18	11	O wär dein Haus durchsichtig (너의 집이 유리처럼 투명했으면)	a	1896.4.12
19	20	Heut Nacht erhob ich mich (오늘 저녁 한밤중에 높이 오르시다)	d	1896.4.25
20	17	Nicht länger kann ich singen (더 길게 노래 할 수 없다)	a	1896.4.23
21	18	Schweig einmal still (좀 조용히 해)	a	1896.4.23
22	22	O wüsstest du, wie viel ich deinetwegen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e	1896.4.26
23	23	Verschling' der Abgrund meines Liebsten Hütte (낭떠러지가 내 애인의 집을 삼킨다)	d	1896.4.29
24	21	Ich hab in Penna einen Liebsten wohnen (페나에 나의 애인이 있다)	F	1896.4.25

2) 볼프 가곡의 일반적 특징

(1) 시

후고 볼프는 《아이헨도르프 가곡집》(1880-1888)을 필두로 《뫼리케 가곡집》(1888), 《괴테 가곡집》(1888-1889), 《켈러 시에 의한 6개의 가곡집》(1890), 《라이니크 시에 의한 3개의 가곡집》(1888-1896) 그리고 《미켈란젤로 시에 의한 3개의 가곡집》(1897)에서 한 시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가곡을 작곡하였다.

후고 볼프는 가곡을 작곡하기 전에 그리고 가곡을 연주하기 전에 항상 큰 소리로 시를 읽었고, 가곡 모음집의 표지에 자신의 이름 보다 시인의 이름을 먼저 기록함으로써 시인과 시를 매우 중시 여겼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볼프는 시를 낭송하면서 독일어의 악센트, 언어의 리듬 그리고 독일어의 특성 등을 자신의 가곡에 적극 반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볼프는 시를 중시하였지만 예외적으로 특정 단어 또는 문장이 가곡 구조상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그 단어 또는 문장을 반복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고렐(Lorraine Gorrell)의 저서 『19세기 독일가곡』에 의하면 볼프는 시인과 시를 선택할 당시에 이미 가곡화되어 유명해진 시보다는 잘 알려지지 않은 시인과 시를 즐겨 사용했다고 한다. 유명한 시인의 작품의 경우에도 다른 작곡가가 사용하지 않은 시를 선택하여 작곡하였다.³⁸⁾

볼프가 택한 시를 살펴보면, 초기 가곡은 과거 다른 작곡가들이 택했던 낭만주의적 주제들보다는 사실주의적인 주제를 많이 다루고 있다. 후에 볼프는 사랑, 동화, 종교, 절망 등 다양한 주제를 사용하여 가곡을 작곡하였다.³⁹⁾

38) Lorraine Gorrell, 『19세기 독일 가곡』, 심송학 역 (서울: 음악춘추사, 2003), 21.

39) Barbara Meister, 『예술가곡개론』, 이경숙 역 (서울: 지문사, 1990), 102.

(2) 선율

후고 볼프는 낭창법(Sprechgesang)을 주로 사용하였다. 볼프가 즐겨 사용했던 낭창법은 바그너가 자신의 음악극에서 사용하던 낭창법과 많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 바그너는 자신의 음악극에서 줄거리의 정확한 전달을 위해 기존의 오페라의 레치타티보를 사용하지 않고 독일어에 가장 어울리는 리듬과 운율을 살려 자신만의 낭창법을 만들어냈다. 볼프 또한 바그너의 영향을 받아 낭창법을 자신의 가곡에 즐겨 사용했다.

볼프는 시의 연과 행을 선율과 통일감을 주었으나, 예외적으로 독일어의 억양에 따라 시의 흐름과 선율의 흐름을 다르게 작곡하기도 하였다.

볼프는 독일어의 리듬과 악센트 그리고 그 시어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당김음과 썸표를 사용하였고, 그 시어를 길게 늘리기도 하였다. 그리고 썸여림과 지시어의 사용으로 시의 낭송 속도와 억양을 표현하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볼프는 자신의 가곡 선율에 반음계를 즐겨 사용하였는데, 그로 인해 가사를 더 섬세하게 표현 할 수 있었다.⁴⁰⁾

(3) 화성

볼프는 바그너가 오페라에서 사용했던 화려하고 복잡한 화성의 사용에 영향을 받았다. 바그너의 화성적 특징을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화성의 기능적 확장이라 할 수 있다. 바그너는 이전에는 사용되지 않았던 해결이 불분명한 화성, 관계조가 아닌 다른 조로의 연속적인 전조, 모호한 불협화음과 반음계의 끊임 없는 사용, 반음계적 전조 등을 파격적으로 사용하여 극의 끊임없는 긴장감과 극적 요소를 만들어냈다. 볼프는 이러한 바그너의 화성을 자신이 가곡에 사

40) 사공정, “F. Schubert와 C. Loewe의 가곡 〈Erlkönig〉 F. Schubert와 H. Wolf의 가곡 〈Ganymed〉의 분석,”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16.

용하고 발전시켰다.⁴¹⁾

볼프는 주로 화자의 감정 또는 움직임, 시의 전반적인 배경을 표현하기 위하여 불협화음과 반음계를 주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특정 장면 또는 분위기, 인물 또는 사물 등을 하나의 조성으로 통일시켜 사용하기도하였다. 이렇게 볼프는 시에서 나타나는 감정, 장면, 분위기, 배경 묘사 등의 표현을 중요하게 생각하였기 때문에 조성에 얽매이기 보다는 잦은 전조, 비기능적 화음의 사용 등 전통조성체계를 벗어나 자유롭게 화성을 사용하여 가곡을 작곡하였다. ⁴²⁾

(4) 리듬

볼프는 화성을 복잡하고 다양하게 사용하는 것에 비해 리듬은 곡 안에서 통일감을 주려고 노력하였다. 볼프는 곡 중간에 시의 내용이 극적으로 전환되거나, 화자가 바뀌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곡 전체를 하나의 리듬형을 사용하여 작곡하였다. 또한 시의 내용, 배경, 화자가 변하는 부분도 그 부분은 하나의 리듬형을 사용하여 통일감을 주었다. 단순한 리듬형을 사용했지만, 하나의 리듬형을 축소 또는 확대하여 사용하였고 당김음과 쉼표도 적재적소에 사용하여 지루하지 않은 곡 진행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리듬형의 변형은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시적 화자의 심리상태, 배경의 변화, 강조하고자 하는 시어를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5) 반주

볼프는 선율을 작곡할 때 낭창법을 사용하였고, 낭창법의 사용이 아니더라도

41) Meister, 『예술가곡개론』, 102.

42) 홍세원, 『서양음악사』, 530.

말에서 오는 어감을 살리는 걸 중점으로 작곡하였기 때문에 반주부는 단순히 노래에 대한 반주가 아닌 선율적인 역할도 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반주부의 역할이 확장되었고, 가사에서 영감을 받은 주제들은 변화 발전하며 전개되었다.

그리고 낭창적인 선율을 보완하기 위하여 반주부에서 풍부한 화성을 사용하였고, 시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부분을 반주부에서 표현하였다. 반주부와 선율은 서로 독립적으로 보이지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있다.

반주부의 전주와 간주, 후주 역시 비중이 커지게 되는데, 전주는 곡 전체에서 사용한 화성과 조성을 미리 짐작할 수 있게 해주고, 시의 배경 또는 상황을 압축하여 나타내준다. 간주는 시의 변화되는 내용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주고 있으며, 후주는 시의 연장처럼 느껴질 정도로 앞의 반주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마무리 지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43)

(6) 형식

볼프의 가곡은 대부분 통절 형식으로 되어있고, 유절형식으로 작곡을 하여도 변형 유절 형식을 택하였다. 볼프는 시와 언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민요풍의 작품들을 제외하고는 유절형식을 피하여 작곡하였다. 볼프는 통절형식으로 곡을 작곡하지만, 전주 또는 간주가 배경을 나타낼 때는 그 부분을 반복하여 사용하였다.44)

43) 사공정, “F. Schubert와 C. Loewe의 가곡 〈Erlkönig〉 F. Schubert와 H. Wolf의 가곡 〈Ganymed〉의 분석,” 17.

44) Gorrell, 『19세기 독일 가곡』, 334.

4. <<괴테 가곡집>> 구성 및 출처

1) <<괴테 가곡집>> 구성

볼프는 1888년 2월 22일 ‘건방지고 유쾌하게 II’(Frech und froh II)⁴⁵⁾ 작곡을 시작으로 1889년 10월 21일 ‘매정한 아가씨’(Die Spröde)까지 총 51개의 곡을 작곡하였고 1890년 비엔나에서 <<괴테 가곡집>>(Gedichte von Johann Wolfgang von Goethe)이란 이름으로 출판하였다.

<<괴테 가곡집>>은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에 나오는 시에서 10곡, 『서동시집』에서 17곡, 신화를 소재로 한 3부작 ‘프로메테우스(Prometheus)’, ‘가니메트(Ganymed)’, ‘인간의 한계(Grenzen der Menschheit)’ 3곡, 개별적인 시 21곡(발라드 4곡, 서정시 17곡)으로 되어있다.

<표 11> <<괴테 가곡집>> 구성⁴⁶⁾

작품번호	작품순서	곡명	조성	작곡연도
1	2	Harfenspieler I (하프연주자 I)	g	1888.10.27
2	3	Harfenspieler II (하프연주자 II)	c	1888.10.29
3	4	Harfenspieler III (하프연주자 III)	f	1888.10.30
4	6	Spottlied aus Wilhelm Meister (빌헬름 마이스터의 야유곡)	F	1888.11.2
5	19	Mignon I (미뇽 I)	F	1888.12.19
6	18	Mignon II (미뇽 II)	g	1888.12.18
7	21	Mignon III (미뇽 III)	a	1888.12.22
8	5	Philine (필리네)	A	1888.10.30
9	17	Mignon(미뇽)	G b	1888.12.17
10	16	Der Sänger (가수)	E	1888.12.14
11	9	Der Rattenfänger (쥐잡는 사람)	a	1888.11.6
12	15	Ritter Kurts Brautfahrt (기사 쿠르트의 구혼여행)	F	1888.12.9

45) 원시의 제목은 'Ein Andres' 이다.

46) Sams, "Wolf, Hugo" 496.

13	14	Gutmann und Gutweib (좋은남자와 좋은여자)	D	1888.11.28
14	23	Cophtisches Lied I (콕타의 노래 I)	A b	1888.12.28
15	24	Cophtisches Lied II (콕타의 노래 II)	d/G	1888.12.28
16	12	Frech und froh I (건방지고 유쾌하게 I)	F	1888.11.14
17	1	Frech und froh II (건방지고 유쾌하게 II)	f/F	1888.2.2
18	25	Beherzigung (명심)	a/A	1888.12.30
19	22	Epiphaniias (에피파니아스)	G	1888.12.27
20	13	St Nepomuks Vorabend (성 네포묵제 전야)	G	1888.11.15
21	49	Genialisch Treiben (천재적 행위)	a	1889.2.10
22	7	Der Schäfer (양치기)	c	1888.11.4
23	48	Der neue Amadis (새로운 아마디스)	g	1889.2.5
24	26	Blumengruß (꽃의 인사)	F	1888.12.31
25	10	Gleich und Gleich (유유상종)	E	1888.11.6
26	51	Die Spröde (매정한 아가씨)	E	1889.10.21
27	50	Die Bekehrte (마음이 풀린 아가씨)	a	1889.2.12
28	20	Frühling übers Jahr (한 해 내내 봄)	A	1888.12.21
29	8	Anakreons Grab (아나크레온의 무덤)	D	1888.11.4
30	11	Dank des Paria (파리아 덕분에)	A b	1888.11.9
31	28	Königlich Gebet (왕족적 기도)	C	1889.1.7
32	36	Phänomen (미스테리)	A	1889.1.19
33	37	Erschaffen und Beleben (창조와 생명부여)	e/E	1889.1.21
34	33	Ob der Koran von Ewigkeit sei? (코란어는 영원함으로 이루어졌나?)	a/A	1889.1.17
35	34	Trunken müssen wir alle sein! (우리 모두 취해야 한다!)	f#	1889.1.18
36	31	So lang man nüchtern ist (꼭 무엇을 해야하는 동안)	a	1889.1.16
37	35	Sie haben wegen der Trunkenheit (그들은 취함 때문에 갖는다)	g	1889.1.18
38	32	Was in der Schenke waren heute (선술집에 오늘 무엇이 있었나)	d	1889.1.16
39	38	Nicht Gelegenheit macht Diebe (기회가 도둑을 만들진 않는다)	F	1889.1.21
40	39	Hochbeglückt in deiner Liebe (복을 많이 받는 당신의 사랑)	B b	1889.1.23

41	41	Als ich auf dem Euphrat schiffte (내가 유프라테스 강에서 배를 탔을 때)	A	1889.1.24
42	42	Dies zu deuten, bin erbötig (이것을 해석할 각오가 되었고!)	A	1889.1.24
43	45	Hätt ich irgend wohl Bedenken (내가 어딘가에 숙고했으면)	A	1889.1.26
44	43	Komm, Liebchen, komm (와라 내 사랑아 와라)	A b	1889.1.25
45	40	Wie sollt ich heiter bleiben (어떻게 계속 유쾌할 수 있나)	f	1889.1.23
46	44	Wenn ich dein gedenke (내가 너를 회상할 때)	f	1889.1.25
47	46	Locken, haltet mich gefangen (곱슬머리가 나를 가두도다)	A	1889.1.29
48	47	Nimmer will ich dich verlieren (다시는 너를 잃지 않을래)	A	1889.1.30
49	27	Prometheus (프로메테우스)	d	1889.1.2
50	30	Ganymed (가니메트)	D	1889.1.11
51	29	Grenzen der Menschheit (인간의 한계)	a	1889.1.9

볼프는 바그너의 영향으로 오페라 작곡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페라나 교향곡과 같은 큰 작품을 쓰기 전에 가곡을 오케스트라 곡으로 편곡하는 것을 통해 이를 연습하고자하였다.⁴⁷⁾ 볼프는 1890년부터 1894년까지 《괴테 가곡집》 중에서 9곡을 오케스트라 곡으로 편곡하였다. 볼프의 괴테 시에 의한 오케스트라 가곡 작품은 다음과 같다.

〈표 12〉 볼프의 《괴테 가곡집》 중 오케스트라 편곡 작품⁴⁸⁾

곡 명	작곡 연도
하프타는 노인 I (Harfenspieler I)	1890.12.2
하프타는 노인 II (Harfenspieler II)	1890.12.4
하프타는 노인 III (Harfenspieler III)	1890.12.4

47) 김윤혜, "Hugo Wolf의 오케스트라 가곡 연구: 괴테의 시에 의한 4개의 곡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15.

48) Sams, "Wolf, Hugo" 496.

미뇽 (Mignon) 1st orch version	1890
2nd orch version	1893.10.31
쥐잡이 (Der Rattenfänger)	1890.2.5
에피파니아스 (Epiphanias)	1894.4.25
아나크레온의 무덤 (Anakreons Grab) 1st orch version	1890(lost)
2nd orch version	1893.11.13
프로메테우스 (Prometheus)	1890.3.12
가니메트 (Ganymed)	1890(lost)

2) 《괴테 가곡집》 시의 출처

(1) No. 1-10

《괴테 가곡집》의 제1곡부터 제10곡은 괴테의 소설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에 수록된 시이다. 괴테의 소설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는 1777년 『빌헬름 마이스터의 연극적 사명』이란 이름으로 집필 되었으며 이탈리아 여행 후 쉴러의 도움으로 소설을 재집필하여 1795년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로 출판하였다. 볼프는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에서 10개의 시에 곡을 붙였다. 시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표 13>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 시 번호와 인물⁴⁹⁾

작품번호	순서	시 번호	곡 명	인 물
1	3	2권 13장	Harfenspieler I (Wer sich der Einsamkeit ergibt)	하프타는 노인
2	8	5권 15장	Harfenspieler II (An die Türen will ich schleichen)	하프타는 노인
3	2	2권 13장	Harfenspieler III	하프타는 노인

49) Johann Wolfgang von Goethe,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 1』, 안삼환 역 (서울: 민음사, 1999)

			(Wer nie sein Brot mit Tränen aß)	
4	5	3권 9장	Spottlied aus Wilhelm Meister (Ich armer Teufel, Herr Baron)	작자 미상
5	9	5권 16장	Mignon I (Heiß mich nicht reden)	미뇽
6	6	4권 11장	Mignon II (Nur wer die Sehnsucht kennt)	미뇽
7	10	8권 2장	Mignon III (So laßt mich scheinen)	미뇽
8	7	5권 10장	Philine (Singet nicht in Trauertönen)	필리네
9	4	3권 1장	Mignon (Kennst du das Land?)	미뇽
10	1	2권 11장	Der Sänger (Was hör' ich draußen vor dem Tor)	하프타는 노인

괴테의 소설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소설의 주인공이자 부유한 상인의 아들 빌헬름은 극장의 설립자가 되는 꿈을 가지고 극단에 들어가 적극적으로 연극 상연에 참여한다. 그곳에서 여배우 마리안네와 사랑에 빠지게 되지만 그녀의 배신으로 크게 상처받고 극단을 떠나게 된다.

여행을 떠난 빌헬름은 우연히 유령극단을 만나 그곳에서 라에르테스(Laertes), 필리네(Philine), 프리드리히(Friedrich)와 연극을 하게 된다. 그들은 함께 서커스단 공연을 관람하다가 서커스 단장에게 학대당하는 어린 소녀 미뇽(Mignon)을 발견한다. 동정심을 느낀 빌헬름은 미뇽을 구출하여 아버지가 될 것을 약속한다. 그리고 그곳에 관객으로 왔던 하프 타는 노인(Harfner)도 만나게 된다.

유령극단과 다른 도시로 이동 중 강도를 만나 빌헬름은 부상을 입게 되고, 아름다운 여성 아마존(Amazon)에게 도움을 받게 된다. 빌헬름이 깨어났을 때 아마존은 이미 사라진 후였고, 그녀에 대한 그리움에 사무친다.

빌헬름은 친분이 있던 제를로(Serlo)를 찾아가 그의 극단에서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연기한다. 이 공연에서 하프 타는 노인은 정신 분열을 일으켜 극장에 불을 지른다.

어린 시절부터 꿈을 가지고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 빌헬름은 극단을 떠나 로타리오(Lothario) 귀족이 이상적인 삶을 실천하고 있는 ‘탑의 모임’으로 간다. 그곳에서 귀족 신분의 사람들과 만나면서 이때까지 그의 인생에 있어 전부였던 “연극에의 길”의 그의 전체 “일생에의 길”에서 일종의 수업시대에 불과한 것임을 깨닫게 된다.⁵⁰⁾

이 시기에 빌헬름은 로타리오의 아들인 줄 알았던 펠릭스(Felix)가 사실은 마리안네가 낳은 자신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된다. 펠릭스를 잘 돌봐야 한다고 생각한 빌헬름은 미농을 돌보고 있는 테레제(Therese)에게 청혼을 한다. 테레제는 청혼을 받아들이고 빌헬름을 만나 포옹을 하는데, 그 장면을 미농이 보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만다.

미농의 장례식장에서 그녀가 아우구스틴(Augustin)과 그의 늦둥이 동생 스페라타(Sperata)사이에서 태어난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 둘은 서로 남매라는 사실을 모른 채 사랑에 빠졌고 아이를 낳았던 것이다. 아우구스틴이 바로 하프 타는 노인이다. 이뤄질 수 없는 사랑과 이 사랑을 통해 낳은 아이는 결국 비극을 맞아 세 명(미농, 아우구스틴, 스페라타) 모두 사망하게 된다.

빌헬름은 단지 펠릭스를 잘 돌볼 수 있다는 생각에 테레제에게 청혼 한 것임을 깨닫는다. 그리고 이 때 로타리오의 동생인 나탈리에가 빌헬름이 그렇게 찾아 헤매던 아마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녀에게 청혼을 하게 된다. 빌헬름은 이를 통해 자신의 자아를 찾았고, 사랑도 찾게 된다.

50) Johann Wolfgang von Goethe,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 2』, 안심환 역 (서울: 민음사, 1999), 430-432.

(2) No. 11-31

《괴테 가곡집》의 제11곡부터 제31곡에 수록된 곡은 특정한 시집이나 소설에서 유래하지 않고 괴테가 개별적으로 발표한 시로 구성되어 있다. 개별적인 시는 4편의 발라드(No.11-13, No.31)와 17편의 서정시⁵¹⁾(No. 14-30)로 구성되어 있다.

발라드로 된 곡은 4곡으로 독일에서 옛날부터 전해오는 쥐 잡는 사나이 하멜론의 전설을 인용하여 날카로운 피리 대신 마법 기타와 멋진 노래로 생쥐 뿐 아니라 어린 아이와 여자들까지도 사로잡을 수 있다는 내용을 유머러스하게 담은 발라드⁵²⁾ ‘쥐잡는 사람’(Der Rattenfänger), 기사 쿠르트가 구혼 여행을 떠나면서 적과 빛과 여자를 모두 얻는다는 풍자적인 내용은 담은 발라드 ‘기사 쿠르트의 구혼여행’(Ritter Kurts Brautfahrt, 1802), 연인에 관한 내용으로 사랑하는 남자가 죽고 그로 인해 여자가 느끼는 감정을 담은 발라드 ‘좋은 남자와 좋은 여자’(Gutman und Gutweib) 그리고 인도의 최하위층인 파리아에 사는 여성과 고귀한 브라만 여인이 머리를 바꾸어 지역을 휩쓸었다는 인도 전설을 읽고 쓴 발라드⁵³⁾ ‘파리아 덕분에’(Dank des Paria)이다.

서정시로 되어 있는 곡은 17곡으로 이집트의 고승이며 비밀 결사의 두목인 콕타(Kophta)에 대한 시⁵⁴⁾ ‘콕타의 노래 I’ (Coptisches Lied I, 1799), ‘콕타의 노래 II’(Coptisches Lied II, 1787), 사랑을 통해 겪는 고통에 대한 시 ‘건방지고 유쾌하게 I’(Frech und froh I), ‘건방지고 유쾌하게 II’(Frech und froh II), 자아 성찰에 대한 시 ‘명심’(Beherzigung, 1777), 바이마르 궁정 잔치를 위해 쓴 시로 예수탄생을 전후한 동방박사의 행적을

51) 서정시: 개인적인 감정과 정서를 주관적으로 표현한 시로 서사시, 극시와 함께 시의 3대 부분 중 하나이다.

52) 김미애, 『독일예술가곡의 이해』 (서울: 삼호출판사, 1998), 170.

53) Johann Wolfgang von Goethe, 『괴테 시 전집』, 전영애 역 (서울: 민음사, 2009), 102.

54) Goethe, 위의 책, 426.

담은 시 ‘에피파니아스’(Epiphantias, 1781)⁵⁵⁾, 성인 네포묵⁵⁶⁾ 신부를 기리는 유등제에서 깊은 인상을 받은 괴테가 쓴 시⁵⁷⁾ ‘성 네포묵제 전야’(St Nepomuks Vorabend, 1820), 괴테 자신의 천재성을 담은 시 ‘천재적 행위’(Genialisch Treiben), 게으른 양치기 소년과 소녀에 대해 풍자적으로 노래한 시 ‘양치기’(Der Schäfer), 16세기 스페인에서 유래되어 유럽에 퍼진 환상적인 이야기들에 대해 다룬 시⁵⁸⁾ ‘새로운 아마디스’(Der neue Amadis, 1770), 화자가 고백의 대상에게 자신이 직접 꺾어 만든 꽃다발을 들고 수천 번 인사한다는 내용의 시 ‘꽃의 인사’(Blumengruß, 1810), 꽃과 벌의 관계에 대해 쓴 짧은 시 ‘유유상종’(Gleich und gleich⁵⁹⁾, 1814), 양치기 소녀와 그녀에게 고백하는 많은 남자들에 대해 풍자적으로 노래한 시 ‘매정한 아가씨’(Die Spröde, 1769), 젊은 아가씨의 사랑과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간 후에 느끼는 쓸쓸함에 대해 쓴 시 ‘마음이 풀린 아가씨’(Die Bekehrte, 1796), 봄에 피는 꽃과 사랑에 대한 시 ‘한 해 내내 봄’(Frühling übers Jahr, 1816), 그리스의 시인 아나크레온을 추모하며 쓴 시 ‘아나크레온의 무덤’(Anakreons Grab, 1813), 왕이 자신과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내용의 시 ‘왕족적 기도’(Königlich Gebet)가 있다.

(3) No. 32-48

볼프는 <<괴테 가곡집>>의 제32곡부터 제48곡까지 괴테의 『서동시집』의 시를 사용했다. 『서동시집』은 괴테가 1815년에 완성한 시집으로 총

55) Johann Wolfgang von Goethe, 『헤원세계시인전1 괴테』, 김중연 역 (서울: 헤원출판사, 1987), 97.

56) 네포묵: 네포묵 신부는 고해 신부였고 국왕비의 고해 내용을 누설하지 않은 죄로 고문 받고 몰다우 강에 수장된다.

57) Goethe, 『괴테 시 전집』, 679.

58) Goethe, 위의 책, 102.

59) 독일 속담 Gleich und gleich gesellt sich gern에서 온 말. 유유상종

239개의 시로 구성되어 있다. 김용민이 번역한 『서동시집』에 의하면, 괴테는 요셉 폰 함머(Joseph von Hammer, 1774-1856)가 번역한 중세시대 시인 하피스(Hafis, 1300-1389)의 시를 읽고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한다. 괴테는 이 영감을 바탕으로 사랑, 음주, 노래를 주제로 삼아 『서동시집』을 만들었다고 한다.⁶⁰⁾

괴테가 『서동시집』을 만들었을 당시에는 나폴레옹이 전쟁에 패하고 유럽사회는 전쟁의 폐해와 왕권복구가 시작되었다. 그는 ‘동방’을 당시 피폐해진 유럽 문화와 구별되는 안녕과 질서의 세계라고 생각했다.

서(West)는 유럽 문화를 의미하고 동(Ost)는 동방을 의미한다. 괴테는 동방문화 즉 오리엔탈리즘을 통해 유럽 문화의 변화를 의미로 서방시인의 동방적인 문학을 추구하는 모음집이라는 뜻에서 『서동시집』이라고 이름을 지었다.⁶¹⁾ 또한 'Divan'이라는 단어는 동방에서는 ‘두루마리 또는 기록된 문서의 모음집’이란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러한 동방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괴테는 자신의 시들을 묶어 *West-östlicher Divan* 즉, 『서동시집』이라고 제목을 붙였다.

하피스와 더불어 『서동시집』을 쓸 때 큰 영감을 준 것은 마리안네 폰 빌머(Marianne von Willemer, 1784-1860)와의 사랑이었다. 괴테는 자신보다 30살 이상 어린 마리안네와 사랑에 빠져 그 은밀한 사랑을 시로 적어 교환했는데, 이 시들이 ‘줄라이카의 서’(Buch Suleika)가 된다.

『서동시집』은 독일의 백발노인이 고향을 떠나 400년 전 하피스가 살았던 페르시아로 상상의 여행을 떠나 그들의 문화에 매료되고, 사랑에 빠지는 등 다양한 체험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⁶²⁾

『서동시집』은 ‘가인의 서’(Buch der Sänger), ‘하피스의 서’(Buch Hafis),

60) Goethe, 『서동 시집』, 369.

61) 강익숙, “F. Schubert와 F. Mendelssohn의 가곡 <Suleika> 예술적 비교 분석,” 29.

62) Johann Wolfgang von Goethe, 『서동 시집』, 최두환 역 (서울: 시와 진실, 2002), 232.

‘사랑의 서’(Buch der Liebe), ‘불쾌의 서’(Buch des Unmuts), ‘관찰의 서’(Buch der Betrachtung), ‘잠언의 서’(Buch der Sprüche), ‘티무르의 서’(Buch Timur), ‘줄라이카의 서’(Buch Suleika), ‘술 따르는 젊은이의 서’(Schenkenbuch), ‘비유의 서’(Buch der Parabeln), ‘배화교도의 서’(Buch des Parsen) 그리고 ‘천국의 서’(Buch des Paradieses) 이렇게 총 12개의 서로 되어 있다.

볼프는 『서동시집』의 12개의 서 중 ‘가인의 서’에서 2곡, ‘술 따르는 젊은이의 서’에서 5곡, ‘줄라이카의 서’에서 10곡으로 총 17곡을 『서동시집』의 시로 작곡하였다.

(4) No. 49-51

볼프는 《괴테 가곡집》 제49곡부터 제51곡까지 신화를 소재로 한 괴테의 시를 사용했다. 신화의 주요 내용은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주어 문명을 개척하게 한 ‘프로메테우스’와 제우스의 사랑을 받아 올림푸스 산에서 신들과 함께 생활하는 미소년 ‘가니메드’이다. 그리고 《괴테 가곡집》의 마지막 곡으로 ‘인간의 한계’를 노래했다.

(가) ‘프로메테우스’

프로메테우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로 그리스 신화에서 인간을 창조하고, 제우스 몰래 올림푸스 산에서 불을 훔쳐 인간에게 준다. 인간에게 불을 준 프로메테우스에게 제우스는 평생 코카서스 바위산에 묶여 독수리가 매일 간을 쪼아 먹도록 하는 형벌을 내린다.⁶³⁾

괴테는 이 시를 1774년 가을에 쓴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1789년 자신의 작

63) Johann Wolfgang von Goethe, 『괴테 명시선』, 김희보 역 (서울: 종로서적, 1988), 201.

품집에 수록하였다. 이 시는 프로메테우스가 독백 형식을 취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⁶⁴⁾

(나) ‘가니메트’

가니메트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트로스(Tros)왕의 아들이고, 모든 인간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년이다. 이 소년의 아름다움에 반한 제우스신이 가니메트를 올림수프(Olympus)산으로 납치해 그에게 술시중을 들게 하였다. ⁶⁵⁾

원래 가니메트는 제우스신에게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신화적 인물이지만, 괴테는 가니메트가 봄의 정취에 도취되어 자발적으로 제우스에게 간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 시는 1774년 초에 쓰인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⁶⁶⁾

(다) ‘인간의 한계’

괴테는 이 시를 1780년에 썼고, 1789년 자신의 작품집에 수록하였다. 이 시는 인간에 대한 연민과 사랑에 대해 얘기하면서도 신들에게는 닿을 수 없는 인간의 한계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여기서 나오는 신들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말한다.⁶⁷⁾

64) Goethe, 『헤일세계시인전1 괴테』, 58.

65) 김성원, “Franz Schubert의 가곡 〈Ganymed〉와 Hugo Wolf의 가곡 〈Ganymed〉의 반주 비교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26.

66) Goethe, 위의 책, 63.

67) Goethe, 위의 책, 140.

5. 악곡 분석

1) ‘꽃의 인사’

(1) 시 분석

Blumengruß

Der Strauß, den ich gepflücket,
grüße dich viel tausendmal!
Ich habe mich oft gebükket,
ach, wohl ein tausendmal,
und ihn ans Herz gedrückt
wie hunderttausendmal!

꽃의 인사

내가 꺾은, 그 꽃다발,
수천 번 너에게 인사하네!
나는 자주 몸을 기울였네,
아, 족히 천 번은,
그리고 그것을 품에 안았었네,
수천수만 번을!

괴테는 시 ‘꽃의 인사’를 1810년에 작시하였다. 이 시는 자신이 직접 꺾어 만
들 꽃다발을 들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수차례 고백한다는 내용이다.

이 시는 1연 6행이며 각운은 ‘십자운’(Kreuzreim)으로 이루어져 있고
‘ababab’ 로 묶을 수 있다. ‘십자운’이란 각행의 어미가 서로 교차해서 짝을
이루는 각운을 뜻한다.

〈표 14〉 ‘꽃의 인사’ 각운의 운율

단락	단어	각운	기호
1	gepflücket	-ket	a
	tausendmal	-mal	b
	gebükket	-ket	a
	tausendmal	-mal	b
	gedrückt	-ket	a
	hunderttausendmal	-mal	b

(2) 음악 분석

볼프는 ‘꽃의 인사’를 1888년 12월 31일에 작곡하였고, 《괴테 가곡집》에 24번째 순서로 수록하였다. ‘꽃의 인사’는 총 19마디의 가곡이며, 빠르기는 ‘느리고 내면적으로’(Langsam und innig)이다. 박자는 4/4이고 조성은 F장조이다. 전체가 A와 후주로 되어 있는 짧은 통절형식의 곡이다. 원시는 6행으로 이루어져있으나, 볼프는 마지막 6행을 한 번 더 연장하여 반복하여 임의로 원시를 변형하였다. 이 곡은 마지막 연장된 행을 제외하고는 각 행이 두 마디로 구성된 매우 규칙적인 구조를 가진다.

〈표 15〉 ‘꽃의 인사’의 구성

형식	A	후주
마디	1-15	15-19
박자	4/4	
조성	F-A _b -b _b -F	
빠르기	Langsam und innig	

‘꽃의 인사’의 선율부는 모든 프레이즈가 약박에서 시작한다. 이 곡은 시의 행과 선율부의 음악진행이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1행(마디 1-2), 3행(마디 5-6), 5행(마디 9-10)과 tausendmal(수천 번)이 들어가는 2행(마디 3-4), 4행(마디 7-8), 6행(마디 11-12)이 각각 공통적인 선율선을 가지고 있고 이 두 묶음(1행, 3행, 5행과 2행, 4행, 6행)은 서로 대조적인 선율선을 가지고 있다. 1, 3, 5행이 속해있는 마디 1-2, 마디 5-6, 마디 9-10은 동일한 음이 반복되다가 행의 어미부분에서 하행 또는 상행하는 형식이며 독일어의 리듬을 살려 작곡하였고, 2, 4, 6행이 속해있는 마디 3-4, 마디 7-8, 마디 11-12는 독일어의 강세를 살려 작곡하였고

음정의 폭이 넓다.

반주부는 곡 전체가 하나의 반주형으로 되어있다. 곡 전체의 리듬은 통일감을 주고 화성의 사용과 반음계 진행의 사용을 통해 변화를 주고 있다. 양성부 모두 ‘♪ ♪,’ 리듬으로 진행되며 오른손 성부와 왼손 성부가 서로 반진행 하여 개리위치에서 밀집위치로 가는 형태이다. 이 곡 전반에 나오는 통일된 반주형은 꽃을 들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수차례 인사하는 화자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악보 1〉 ‘꽃의 인사’ 반주형



(가) A 부분 (마디 1-15)

선율부 마디 1에서 Der Strauß(그 꽃다발)가 나오는데 앞뒤로 쉼표를 사용하여 시어의 낭송속도를 표현해주고 있다. 마디 2의 gepflücket(꺾다)는 단어의 언어적 의미를 살려 2도 하행하고 있고 마디 6의 gebükket(구부리다) 또한 시어의 의미를 살려 5도 하행하고 있다. 선율부는 전체적으로 완만한 흐름을 갖고 있는데 마디 6에서 마디 7로 넘어갈 때만 유일하게 8도 도약이 나온다. 이는 ach라는 감탄사가 나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율부의 음정 관계는 모두 독일어의 억양을 살리고, 시어의 의미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선율부에서 tausendmal(수천 번)이 들어간 프레이즈는 음폭이 넓은데 반주부에서 선율부와 반진행하여 곡의 균형을 맞추고 있다. 마디 4에서 반주부 왼손 상성부가 반음계 하행하면서 선율부와 반진행하고, 마디 7-8도 반주부 왼손 성부가 각각 순차 상행 하여 선율부와 반진행한다. 그리고 마디 8의 tausendmal(수천 번)을 반주부 오른손에서 받아 ‘♪♪♪’ 리듬으로 노래하고 있다.

〈악보 2〉 ‘꽃의 인사’ 마디 1-8

Langsam und innig

2도 하행 상행

Der Strauß, den ich gepflücket grüße dich viel tausendmal!

반진행

sehr zart

5도 하행 8도 도약 하행 하행

Ich habe mich oft gebücket, ach, wohl ein tausendmal!

반진행 상행

선율부 마디 9-15의 음정은 E \flat 으로 시작해서 최고음인 F까지 발전한 후 한 옥타브 아래 F까지 하행한다. 마디 13-15는 마디 11-12의 시어를 한 번 더 반복하는데 전체적인 음정은 3도 정도 떨어지지만 tausend의 음 길이를

연장하여 시어를 강조해주고 있다.

반주부는 마디 9부터 셈여림이 크레센도되어 마디 11에서 포르테가 나오
고 바로 피아노가 나온 뒤 마디 18까지 점점 줄어든다. 반주부의 선율선을
보면 마디 9-11까지 왼손 베이스 성부가 순차 상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마디 11부터 마디 15까지 비화성음을 사용하여 오른손 윗 성부는
순차 하행하고, 왼손 베이스 성부는 반음계 하행하여 마디 15에서 F장조의
I 화음으로 마무리된다.

선율부와 반주부를 모두 살펴보았을 때 볼프가 und ihn ans Herz
gedrückt wie hunderttausendmal(그리고 그것을 품에 안았었네 수천수만
번을)을 이 곡의 정점으로 설정해 놓은 것을 알 수 있다.

〈악보 3〉 ‘꽃의 인사’ 마디 9-15

9 und ihn ans Herz gedrückt wie hunderttausendmal! *최고음* *ruhiger und immer abnehmend* 하행

9 *cresc.* *f* *p* *dim.* 반음계 하행

13 순차 상행

13 Wie hunderttausendmal! 음 길이 연장

13 *pp* F: I

(나) 후주 (마디 15-18)

후주는 이 곡 전체의 반주형인 ‘♪ ♪,’에서 쉼표가 생략된 형태로 변형되어 ‘♪ ♪ ♪ ♪’ 리듬으로 진행된다. 쉼여림은 피아니시모에서 점점 줄어들고 화성 또한 F장조의 I 화음과 V 화음을 교대로 사용하여 계속 ‘너’에게 인사하는 화자의 모습을 표현하면서 불완전 정격종지로 종지한다.

〈악보 4〉 ‘꽃의 인사’ 마디 15-18

F: I V₂⁴ I V₂⁴ I V₂⁴ I V₂⁴ I V₂⁴ I V₂⁴ I

2) '매정한 아가씨'

(1) 시 분석

Die spröde

An dem reinsten Frühlingsmorgen
Ging die Schäferin und sang,
Jung und schön und ohne Sorgen,
Daß es durch die Felder klang,
So la la! le ralla.

Thyrsis⁶⁸⁾ bot ihr für ein Mäulchen
Zwei, drei Schäfchen gleich am Ort,
Schalkhaft blickte sie ein Weilchen;
Doch sie sang und lachte fort:
So la la! le ralla.

Und ein Andrer bot ihr Bänder,
Und der Dritte bot sein Herz;
Doch sie trieb mit Herz und Bändern
So wie mit den Lämmern Scherz,
Nur la la! le ralla.

매정한 아가씨

화창하게 갠 봄날 아침,
노래하며 걸어오는 여목동.
젊고 태평스런 고운 아가씨.
노래는 온 들에 퍼져나가네.
그렇게 랄라! 레랄라!

키스를 한 번만 받아주면, 당장에
새끼 양 두어 마리 주겠다는 티르시스,
익살맞게 흘끗 쳐다보고는
계속 노래하며 웃기만 하네.
그렇게 랄라! 레랄라!

다른 젊은이는 예쁜 리본을,
또 다른 하나는 심장을 바친다고 하네.
그러나 그녀는 심장과 리본을
양들과 노는 것처럼 장난쳤다네.
오직 랄라! 레랄라!

68) Thyrsis: 목동의 이름. '티르시스'(Thyrsis) 또는 '다몬'(Damon)이라는 이름이 흔히 쓰인다.

괴테는 시 ‘매정한 아가씨’를 1769년에 작시하였다. 이 시는 양치기 소녀가 맑은 봄날 아침 들판을 거닐 때 남자들이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하지만 결국 받아주지 않고 남자들의 마음을 가볍게 여기고 장난친다는 내용이다.

이 시는 3연으로 되어 있고 각 연들은 후렴구를 포함한 5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운은 ‘십자운’으로 되어있고, ‘ababc, ddfdc, egegc’의 구성이다.

〈표 16〉 ‘매정한 아가씨’ 각운의 운율

단락	단어	각운	기호
1	Frühlingsmorgen	-en	a
	sang	-ang	b
	Sorgen	-en	a
	klang	-ang	b
	후렴구		c
2	Mäulchen	-chen	d
	Ort	-ort	f
	Weilchen	-chen	d
	fort	-ort	f
	후렴구		c
3	Bänder	-er	e
	Herz	-erz	g
	Bändern	-ern	e
	Scherz	-erz	g
	후렴구		c

(2) 음악 분석

이 곡은 1889년 10월 21일에 작곡 된 곡으로, 《괴테 가곡집》의 26번째 작품이다. 총 61마디의 가곡이며, 빠르기는 ‘가볍게 움직이며’(Leicht bewegt)이다. 박자는 전체적으로 6/8이고 중간에 3/8이 나오며, 조성은 E장조지만 잦은 전조가 특징적이다. 이 곡은 A(전주+a+b+간주)-B(c+b’)-A’(간주+a'+b''+후주) 3부 형식으로 되어있다. 각 부분의 마디 수는 A(21마디), B(20마디), A'(21마디)로 균형적으로 작곡되었다. 각 부분 안에 시의 후렴구인 b와 b'의 변형된 형태가 포함되어 있다.

〈표 17〉 ‘매정한 아가씨’의 구성

형식	A				B		A'			
마디	전주	a	b	간주	c	b'	간주	a'	b''	후주
	1-2	3-12	13-21	20-21	22-33	34-41	41-42	43-52	53-61	60-61
조성	E-D-g#-c#-E				c#-Bb-f-F#-c#		c#-E-D-f#-c#-E			
박자	6/8-3/8-6/8				6/8		6/8-3/8-6/8			
빠르기	Leicht bewegt									

‘매정한 아가씨’의 선율부는 전체적으로 도약이 없고 완만한 선율선을 갖고 있다. 독일어의 언어적 특성을 살리면서도 아름다운 선율로 작곡 된 것이 특징이다.

이 곡의 반주부는 반주형 ㉠(Schäferin)과 반주형 ㉡(Thyrsis) 그리고 반주형 ㉢(Schäferin의 노래)로 되어 있다. 반주형 ㉠과 ㉡은 시적 화자의 변화에 따라 화자가 ‘양치기 소녀’이면 반주형 ㉠이, ‘티르시스’면 반주형 ㉡이 나온다. 반주형 ㉢은 시의 후렴구이자 ‘양치기 소녀의 노래’가 직접적으로 표현 되는 부분에서 나온다.

<악보 5> '매정한 아가씨' 반주형 ㉠ (Schäferin)

<악보 6> '매정한 아가씨' 반주형 ㉡ (Thyrsis)

<악보 7> '매정한 아가씨' 반주형 ㉢ (Schäferin의 노래)

(가) A 부분 (마디 1-21)

마디 1-2는 전주이고 반주형 ㉠으로 되어있다. 전주에서는 양치기 소녀가 노래하며 걷고 있는 시의 배경을 표현해주고 있다. 화성은 E장조의 vi 화음으로 시작한다.

a 부분(마디 3-12)의 선율부는 마지막 프레이즈를 제외하고 한 행이 두 마디에 걸쳐 구성되어 있는 규칙적인 구조이고, 아치형 선율을 가지고 있다. 마디 5에서 이 시의 주인공인 Schäferin(양치기 소녀)이 나오는데 ‘양치기 소녀’의 캐릭터를 표현해주기 위해 선율에서 꾸밈음을 사용했다. 한 행이 두 마디에 걸쳐 진행 되던 선율은 마디 9-12에서 2배로 확장되어 네 마디에 걸쳐 진행된다. 이는 Felder Klang(들판에 울리다)이란 가사를 표현하기 위함이다.

반주부는 시적 화자가 ‘양치기 소녀’이기 때문에 반주형 ㉠으로 되어있다. 각 마디의 왼손 첫 박은 밀집화음을 사용하지 않고 각 화음의 3음을 올리거나 내려서 공허한 색감을 만들어 내고 있다. 마디 3은 E장조의 ii 화음으로 시작하여 마디 7에서 D장조로 마디 10에서 g#단조로 전조된다. 이러한 잦은 전조는 볼프의 화성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반주형 ㉠이 나올 때 선율부와와의 관계를 보면 반주부의 왼손과 오른손 사이에 선율부가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

〈악보 8〉 ‘매정한 아가씨’ 마디 1-12

Leicht bewegt

반주형 ㉠

An dem rein - sten

mf *dim.* *p* *p*

4 E:vi 캐릭터 표현 ii

Früh - lings-mor - gen ging die Schä - fe - rin und sang,

p

7 E: iii6

jung und schön und oh - ne Sor - gen, daß es durch die

mf *cresc.*

10 D:I V

Fel - der klang. 리듬 연장

8^{va}

p

G#:i₄ V_{7/V} V

b 부분(마디 13-21)의 선율부는 시의 연마다 나오는 후렴구 so la la! le ralla!(그렇게 라라! 레랄라!)와 이 후렴구가 반복되는 형식이다. 처음 후렴구는 4마디로 되어 있고, 반복되는 후렴구는 중간에 3/8박자 마디가 한 마디 추가 되어 5마디로 되어 있다. b 부분은 시에서 양치기 소녀가 노래 부르는 것을 직접적으로 묘사했기 때문에 a 부분보다 선율부의 음역대가 높다.

반주부는 '양치기 소녀의 노래'가 나오기 때문에 반주형 ㉔로 되어 있다. 선율부와 반주부가 서로 반진행하여 곡의 균형을 맞춰주고 있다. 마디 13부터 마디 14 첫 박까지는 반주부 왼손과 선율부가 반진행하고, 마디 14부터 마디 15는 반주부 오른손과 선율부가 반진행한다. 마디 17부터 마디 20까지는 반주부 왼손과 선율부가 반진행하고 있다. 반주부 마디 13-15은 c# 단조의 I화음 안에서 비화성음의 경과적인 사용을 통해 왼손이 반음계 하행 진행하고 있고, 마디 17-19도 E장조의 화음 안에서 왼손이 반음계 하행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비화성음의 사용과 반음계 진행의 사용 또한 볼프가곡의 화성적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간주(마디 20-21)는 마디 1부터 부화음의 사용과 잦은 전조, 그리고 반음계 진행을 걸쳐 처음으로 이 곡 전체의 조성인 E장조의 으뜸화음의 기본위치가 나오면서 b 부분을 정리해주고 있다.

<악보 9> '매정한 아가씨' 마디 13-21

13 *pp*
so la la! le - ral - la - la!

선율부와 반주부 반진행

반주형 ⊖

pp
c#: i 반음계 진행

16 so la - la, - 선율부와 반주부 반진행

16 *pp*
c#: V/V V E: vi I₄ N6 반음계 진행

19 ral - la - la!

19 *p*
E: V7 I V I

(나) B 부분 (마디 22-41)

c 부분(마디 22-33)의 선율부는 마지막 프레이즈를 제외하고는 U자형으로 되어있다. 마디 23-24는 행은 바뀌지만 프레이즈의 끝과 시작이 연결되어 있는데, ein(하나), zwei(둘), drei(셋)라는 수를 세는 단어가 연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마디 22-26는 화자가 '티르시스'이고 마디 27부터는 다시 화자가 'sie'(양치기 소녀)로 돌아오기 때문에 마디 26와 마디 27에 약한 마디를 쉬어준다. 마디 29에서도 한 마디를 쉬는데 여기서는 Weilchen(잠시 동안)이라는 정적인 시어가 나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디 30-33는 lachte fort(끊임없이 웃는다)라는 가사를 표현하기 위해 마디가 확장된다.

반주부는 반주형 ㉠ 5마디와 반주형 ㉡ 7마디로 되어있다. 마디 22-26는 시적 화자가 '티르시스'이기 때문에 반주형 ㉠이 나오고, 마디 27-33는 화자가 'sie'(양치기 소녀)로 바뀌기 때문에 반주형 ㉡이 나온다. 반주형 ㉠은 반주부의 음역대가 전체적으로 내려가서 반주부 위에 선율부가 나오는 구조로 되어있다. 마디 22-33는 상관관계가 전혀 없는 조성으로 갑작스럽게 전조하는 것이 특징인데, c#단조에서 Bb장조-f단조-F#장조로 전조된다.

〈악보 10〉 ‘매정한 아가씨’ 마디 22-33

22
Thyr - sis bot ihr für (ein) Mäul - chen (zwei, (drei) Schäf - chen
선율선 연결

22
반주형 ⊖ *p* *mf*

25
gleich am Ort, schalk - haft blick - te
반주형 ⊖ *pp*

25
p *pp*

28
sic ein Weil - chen: doch sie sang — und
f

28
f

31
lach - te fort 리듬 연장
p

31
p

Chords: C# vii⁷ -₂ V₃⁴ - 7 I -₂ (Bb) V₇ I (i: VI₄5 V #5 (F#) IV₄⁶ V₇ I

b' 부분(마디 34-41)은 b 부분(마디 13-21)의 변형으로 선율부는 첫 마디 시작음이 C에서 E로 바뀌었고, 꾸밈음을 사용하여 양치기 소녀가 티르시스의 고백에 코웃음 치며 노래하는 모습을 묘사했다. 그리고 b 부분과는 다르게 선율의 끝을 마무리 짓지 않고 G#으로 길게 끌면서 포르테시모부터 피아니시모까지 테크레센도되어 사라지듯이 끝이 난다. 그리고 b 부분과 다르게 반복 되는 후렴구(마디 38-41)에서 rallala(랄라라)가 생략되어 4마디로 되어 있다.

반주부는 앞의 4마디는 b 부분과 동일하다. 마디 38은 앞과 다르게 그대로 c#단조를 사용하고 있다. 왼손 베이스는 반음계 하행하여 선율부와 반진행하고 있다.

〈악보 11〉 ‘매정한 아가씨’ 마디 34-41

(다) A' 부분 (마디 41-61)

마디 43-47의 선율부는 음정 변화가 거의 없어 남자들의 고백에 지루해 하는 화자의 심정이 묘사되어있다. 마디 51는 Lämmern Scherz(양들과 놀다)라는 가사의 뜻을 살려 셋잇단음표를 사용했다.

반주부 마디 41-42는 간주 부분으로 전주와 똑같은 음형이 반복되어 B 부분과 A' 부분을 연결해주고 있다. A' 부분은 A 부분과 전체적으로 유사한 진행을 하고 있다. 중간에 마디 47가 추가되었고, 마디 50-51는 밝은 색감을 가지고 있는 F#장조로 전조하여 남자들의 고백을 가볍게 여기는 화자의 마음을 표현했다.

〈악보 12〉 ‘매정한 아가씨’ 마디 41-52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two systems. The first system covers measures 41-42, with a box highlighting the piano accompaniment. The second system covers measures 44-46. The vocal line is in the upper staff, and the piano accompaniment is in the lower staves. The key signature has three sharps (F#, C#, G#) and the time signature is 3/4. Dynamics include *pp* and *p*. The lyrics are: 'Und ein and - rer bot ihr Bän - der, und der drit - te bot sein Herz;'. The label '전주와 동일' is placed below the piano part of measures 41-42.

47 doch sie trieb mit Herz und Bän - dern

47 마디 추가

50 so wie mit den Läm - mern Scherz,

F#: I₄⁶ V I

b" 부분(마디 53-61)의 선율부는 앞의 4마디는 b' 부분, 뒤의 5마디는 b 부분과 동일한 음정이 사용되었고 남자들이 고백에 코웃음 치며 들판을 거니는 화자의 모습을 표현했다. 반주부는 b 부분과 동일하다.

<악보 13> '매정한 아가씨' 마디 53-61 선율부

53 nur la - la! le - ral - la - la! nur la -

58 la, ral - la - la!

3) ‘마음이 풀린 아가씨’

(1) 시 분석

Die Bekehrte

Bei dem Glanz der Abendröte
Ging ich still den Wald entlang,
Damon saß und blies die Flöte,
Daß es von den Felsen klang,
So la la! le ralla

Und er zog mich zu sich nieder,
Küßte mich so hold, so süß.
Und ich sagte: blase wieder!
Und der gute Junge blies,
So la la! le ralla

Meine Ruh ist nun verloren,
Meine Freude floh davon,
Und ich hör' vor meinen Ohren
Immer nur den alten Ton,
So la la! le ralla

마음이 풀린 아가씨

석양이 붉게 물들 때
나는 조용히 숲으로 걸어갔다네
다몬은 앉아서 피리를 불었었지
소리가 바위를 울려 나왔다네
그렇게 라라! 레 랄라!

그는 날 가까이에 앉히고는
점잖고 달콤하게 키스했다네
그리고 난 말했지 “다시 피리를 불어주소” 라고
그래서 그 마음 좋은 소년은 피리를 불었다네
그렇게 라라! 레 랄라!

나의 안식은 이제 사라졌다네
내 기쁨은 멀리 날아가 버렸지
그리고 내 귀에 들리는 것은
오직 끊임없는 옛날의 곡조뿐
그렇게 라라! 레 랄라!

괴테는 시 ‘마음이 풀린 아가씨’를 1796년에 작시하였다. 이 시는 어린 소녀가 피리 부는 청년 Damon(다몬)에게 반해 사랑을 나누고 떠나간 그의 빈자리를 그리워하며 기쁨과 평화를 모두 잃었다고 말하는 내용이다. 이 시는 ‘매정한 아가씨’와 같은 시기에 작시되진 않았지만 시의 구성이 매우 유사하다. 두 시 모두 So la la! le ralla(그렇게 라라! 레랄라!)라는 후렴구를 갖고 있다.

이 시는 3연으로 되어 있고 각 연들은 후렴구를 포함한 5행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운은 ‘십자운’으로 되어있고 ‘ababc, dedec, fgfgc’의 구성이다.

〈표 18〉 ‘마음이 풀린 아가씨’ 각운의 운율

단락	단어	각운	기호
1	Abendröte	-te	a
	entlang	-ang	b
	Flöte	-te	a
	klang	-ang	b
	후렴구		
2	nieder	-er	d
	süß	-ß	e
	wieder	-er	d
	blies	-s	e
	후렴구		
3	verloren	-en	f
	davon	-on	g
	Ohren	-en	f
	Ton	-on	g
	후렴구		

(2) 음악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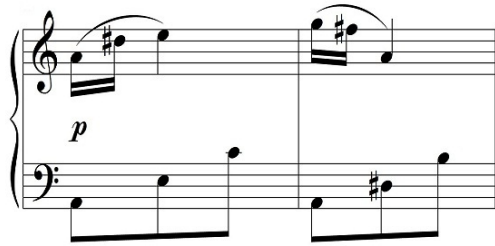
이 곡은 1889년 2월 12일에 작곡된 곡으로, 《괴테 가곡집》의 27번째 작품이다. 총 102마디의 가곡이며, 빠르기는 ‘가볍게 움직이며, 느리지 않게’(Leicht bewegt, nicht schleppend)로 이다. 박자는 3/8이고 조성은 a단조이다. 이 곡은 A(전주+a+b)-B(c+b'+간주)-A'(a'+b'+후주) 3부 형식으로 되어 있다. 각 부분의 마디 수는 A(36마디), B(31마디), A'(36마디)로 균형적으로 작곡되었다. 각 부분 안에 시의 후렴구인 b와 b'의 변형된 형태가 포함되어있다.

〈표 19〉 ‘마음이 풀린 아가씨’ 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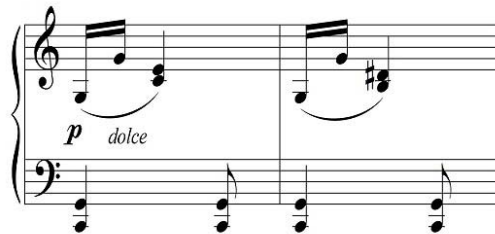
형식	A			B			A'		
마디	전주	a	b	c	b'	간주	a'	b'	후주
	1-4	5-25	25-36	37-53	53-62	63-66	67-87	87-101	99-102
조성	a-B-a			a-f#-Bb-a			a-B-a		
박자	3/8								
빠르기	Leicht bewegt, nicht schleppend								

‘마음이 풀린 아가씨’는 3개의 반주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반주형 ㉠(ich)와 반주형 ㉡(Damon) 그리고 반주형 ㉢(Damon의 피리소리) 로 되어 있다. 반주형 ㉠과 ㉡은 시적 화자의 변화에 따라 화자가 ‘나’일 때 반주형 ㉠이, ‘다몬’일 때 반주형 ㉡이 나온다. 반주형 ㉢은 시의 후렴구이자 ‘다몬의 피리소리’가 묘사 되는 부분에서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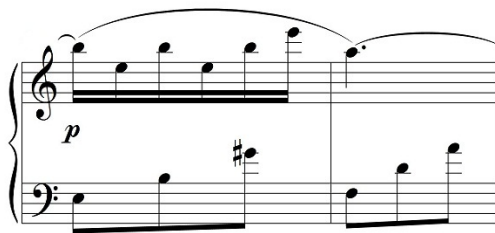
〈악보 14〉 ‘마음이 풀린 아가씨’ 반주형 ㉠ (ich)



〈악보 15〉 ‘마음이 풀린 아가씨’ 반주형 ㉡ (Damon)



〈악보 16〉 ‘마음이 풀린 아가씨’ 반주형 ㉢ (Damon의 피리소리)



(가) A 부분 (마디 1-36)

전주는 마디 1-4로 반주형 3개가 집약적으로 나오면서 곡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나타내준다. 오른손에서는 반주형 ㉠과 반주형 ㉡이, 왼손에서는 반주형 ㉢가 나온다.

〈악보 17〉 ‘마음이 풀린 아가씨’ 마디 1-4

마디 5-14 선율부는 도약이 거의 없는 아치형 선율로 진행된다. 기본적으로 4마디에 한 행이 나오는 구조이고, 시어의 의미에 따라 마디를 연장하고 있다. 마디 14-15는 ging ich still den Wald entlang(조용히 숲으로 걸어갔다네)라는 가사 표현을 위해 마디를 연장하고 있고, 마디 21-25는 Felsen klang(바위를 울리네)이라는 가사 때문에 한 마디를 연장하고 있다. 마디 17-25는 내가 다몬이 피리를 부는 모습을 바라보는 부분으로 앞보다 음정 도약이 많고 유동적이다.

a 부분의 반주부는 ‘내가’ 행동하고 본 것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반주형 ㉠이 나온다. 오른손은 규칙적으로 두 마디에 걸쳐 한마디는 상행형 한마디는 하행형인 아치형으로 구성되어있는데, ging(걸어가다)라는 동사가 나오면서 마디 12부터 마디 14까지 상행형으로만 구성되고 왼손은 A-G-F#으로 순차 하행한다. 또, blies(불다)라는 동사가 나오면서 마디 20-24까지 상행형으로만 구성되고 왼손은 D \flat -C-B로 반음계 하행한다.

〈악보 18〉 ‘마음이 풀린 아가씨’ 마디 5-25

5 *p*
Bei dem Glanz der A - bend - rö - te ging ich still den Wald ent -

5 *p* 상행 하행 *pp* 순차 하행

12 리듬 연장 *lang.* *rit.* *a tempo* Da - mon saß und

12 상행 *p* *pp* *p*

19 리듬 연장
blies die Flö - te, daß es von den Fel - sen Klang,

19 *pp* *p* 상행 *mf* *p* 반음계 하행

b 부분(마디 26-36)은 시의 연마다 나오는 후렴구로 원래 시는 la la! rallala(라라! 랄라라)로 되어있으나 볼프가 rallala lala rallalala를 추가하였다.

선율부는 다몬의 피리소리를 내가 따라 부르고 있는 부분이다. 마디 34에

지시어 ‘점점 사라지듯이’(verhallend)가 나와 마무리 되고 있다. 나의 노랫 소리를 직접적으로 묘사했기 때문에 a 부분보다 선율부의 음역대가 높다.

반주부는 반주형 ⊖(Damon의 피리소리)가 나온다. 다몬의 피리소리는 항상 선율부보다 한마디 먼저 나오는데 가사가 so(이렇게) lala이기 때문이다. 반주부에서 나오는 선율이 다몬의 피리소리고 선율부의 선율은 내가 다몬의 피리소리를 묘사하여 부르는 노래이다.

〈악보 19〉 ‘마음이 풀린 아가씨’ 마디 25-36

25 피리소리 묘사

so la - la! ral - la - la! ral - la -

25 *p* 다몬의 피리소리 *piu p*

31 점점 사라지듯이 *verhallend*

la la - la ral - la - la - la!

31 *mf* *pp*

(나) B 부분 (마디 37-62)

c 부분(마디 37-53)는 음정 도약이 거의 없고 완만하게 가다가 “blase wieder” (다시 피리를 불어주오)라는 가사가 나올 때 6도 도약하는데 이는 직설화법이 나오기 때문이다. 선율부에서 시를 섬세하게 표현하기 위해 반음계 진행이 나오는데 선율부에서의 반음계 사용은 볼프가 즐겨 쓰던 방법이다. 마디 39-40에서 C-B-B \flat , 마디 43-44에서 D-C \sharp 그리고 마디 47-48에서 F-E-E \flat -D로 곳곳에서 반음계 진행이 나온다. 마디 52는 blies(불다)라는 동사가 나오기 때문에 한 마디를 연장해주고 있다.

반주부는 반주형 \ominus (Damon)이 나온다. 마디 37-44는 전체적인 음역대가 떨어지고 왼손의 리듬형도 ‘♪♪♪’에서 ‘♪♪’로 앞과 달라진다. 이 곡은 오른손 반주부 안에 선율부가 모두 들어가 있는데 마디 37-44만 반주부가 선율부보다 밑으로 내려가 있어 선율부가 부각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마디 41-46까지 왼손이 순차 상행한다. 마디 56-63는 화자가 다문에서 나로 바뀌지만 다문과 내가 사랑을 나누는 후이기 때문에 반주형은 그대로 놔두고 반주의 음역대를 높여 변화를 주고 있다.

<악보 20> '마음이 풀린 아가씨' 마디 35-53

35 반음계 진행

Und er zog mich zu sich nie - der

35 반주형 ㉠

pp *p dolce* 반주부 음역대 떨어짐

41 반음 하행

küß - te mich so hold, so süß, und ich sag - te:

mf *p* 오른손 음역대 상승

47 반음계 진행 직설 화법 사용(") 순차 상행

"bla - se wie - der!" und der gu - te Jun - ge 마디 연장
blies,

pp *p* *pp*

b' 부분(마디 53-62)은 b 부분보다 전체적으로 2마디가 축소되었고 so lala의 음정 폭도 D-A-E에서 D-F-E로 줄어든다.

간주는 마디 63-66로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다. 다몬과 사랑을 나누고 다몬이 떠나간 상태를 간주에서 표현해주고 있다. 화성은 a단조의 V-vi-Ger.6-V으로 진행된다.

<악보 21> '마음이 풀린 아가씨' 마디 53-66

(다) A' 부분 (마디 67-102)

a' 부분(마디 67-87) 선율부의 시작은 a 부분과 다르게 프레이즈 첫 음이 제일 높고 점점 하행하여 verloren(사라지다)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이 곡의

최저음인 D#이 나온다. 그리고 마디 84-85에 나오는 alten ton(옛날의 그 소리)에서 리듬을 연장하고 ‘점점 느리게’(poco ritardando)라는 지시어를 사용하여 시어를 강조해주고 있다.

〈악보 22〉 ‘마음이 풀린 아가씨’ 마디 63-87 선율부

67 *a tempo* 순차 하행
Mei-ne Ruh ist nun ver-lo-ren, mei-ne Freu-de floh da-

74 *rit.* *a tempo* 최저음D#
von, und ich hör vor mei-nen

81 *poco rit.* *a tempo* 리듬 연장
Oh-ren im-mer nur den al-ten Ton.

b" 부분(마디 88-101)은 지금 들리는 소리가 아닌 이미 사라졌지만 나의 귀에만 끊임없이 들리는 다몬의 피리소리가기 때문에 음폭도 D-A-E에서 D-F-E로 좁아지고 마디도 4마디를 확장하여 lala를 한 번 더 반복하여 내 귓가에 다몬의 피리소리가 계속 맴도는 것을 표현해주며 곡을 끝내고 있다.

〈악보 23〉 ‘마음이 풀린 아가씨’ 마디 88-101 선율부

88 D-A-E에서 D-F-E로 축소
so la-la! ral-la-la! ral-la-la la la

94 *pp* 마디 확장
ral-la-la la! la-la!

후주(마디 99-102)는 전주와 유사한 형태로 반주형 ㉠, ㉡, ㉢이 모두 나와 수미상관 관계를 보여준다. 마지막을 반주형 ㉢(Damon의 피리소리)로 끝내며 선율부와 마찬가지로 이미 사라졌지만 주인공에게만 끊임없이 들리는 다몬의 피리소리를 표현해주고 있다.

〈악보 24〉 ‘마음이 풀린 아가씨’ 마디 99-102

99
 반주형 ㉠ 오른손
pp
 반주형 ㉠ 왼손
 반주형 ㉢ 오른손

4) ‘한 해 내내 봄’

(1) 시 분석

Frühling übers Jahr

Das Beet, schon lockert sich's in die Höh',
Da wanken Glöckchen so weiß wie Schnee;
Safran entfaltet gewalt'ge Glut,
Smaragden keimt es und keimt wie Blut.
Primeln stolzieren so naseweis,
Schalkhafte Veilchen, versteckt mit Fleiß;
Was auch noch alles da regt und webt,
Genug, der Frühling, er wirkt und lebt.

Doch was im Garten am reichsten blüht,
Das ist des Liebchens lieblich Gemüt.
Da glühen Blicke mir immerfort,
Erregend Liedchen, erheiternd Wort;
Ein immer offen, Ein Blütenherz,
Im Ernste freundlich und rein im Scherz.
Wenn Ros' und Lilie der Sommer bringt,
Er doch vergebens mit Liebchen ringt.

한 해 내내 봄

화단은 벌써 흙 부드러워져 봉긋 솟는다
저기 종꽃이 흔들린다 눈처럼 하얗게,
샤프란은 이글이글 세찬 불을 한껏 피우고
에메랄드빛으로 그리고 핏방울처럼 짙이 튼다
앵초들은 으쓱거린다 저렇게 앙증맞게,
짓곳은 제비꽃들 열심히 숨었다
무슨 온갖 것이 저기 솟구치고 움직이든
요컨대, 봄, 봄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뜰에서 가장 풍요롭게 꽃피는 것
그건 작은 사랑의 사랑스러운 마음.
저기 눈길에 이끌거린다 나에게 늘
흥분시키는 노래 명랑하게 하는 말.
늘 열려 있는 꽃 마음 하나
진지함 가운데 다정하고 희롱 가운데 맑다.
장미며 백합이야 여름이 가져오지만
그래도 여름도 사랑과는 겨루어도 허사.

괴테는 시 ‘한 해 내내 봄’을 1816년 3월 15일에 썼다. 이 시는 봄에 피는 꽃을 나열하고 봄에 피는 이 많은 꽃들 중에 가장 풍요롭게 피는 꽃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내용이다.

이 시는 2연으로 되어있고 각 연은 8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운은 ‘쌍운’(Paarreim)으로 이루어져 있고 ‘aa,bb,cc,dd,ee,ff,gg,hh’로 묶을 수 있다. ‘쌍운’이란 각행의 어미가 연속으로 쌍을 이루는 각운을 뜻한다.

〈표 20〉 ‘한 해 내내 봄’ 각운의 운율

단락	단어	각운	기호
1	Höh'	-e	a
	Schnee	-ee	a
	Glut	-ut	b
	Blut	-ut	b
	naseweis	-eis	c
	Fleiß	-eiß	c
	webt	-ebt	d
	lebt	-ebt	d
2	blüht	-üht	e
	Gemüt	-üt	e
	immerfort	-ort	f
	Wort	-ort	f
	Blütenherz	-erz	g
	Scherz	-erz	g
	bringt	-ingt	h
	ringt	-ingt	h

(2) 음악 분석

이 곡은 1888년 12월 21일에 작곡 된 곡으로, 《괴테 가곡집》의 28번째 작품이다. 총 83마디의 가곡이며, 빠르기는 ‘매우 부드럽고 우아하게’(Sehr zart und anmutig)로 이다. 박자는 4/8이고 조성은 A장조를 중심으로 조성변화를 한 후 다시 A장조로 돌아온다. A 부분은 잦은 전조가 일어나며 B 부분은 전조 없이 A장조를 유지한다. 이 곡은 A(전주+a+a'+b+간주+b'+간주)-B(c+c'+c''+간주+b''+후주)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통절 형식이다. 각 부분의 마디 수는 A(44마디), B(39마디)로 균형적으로 작곡되었다.

<표 21> ‘한 해 내내 봄’ 의 구성

형식	A							B						
	전주	a	a'	b	간주	b'	간주	c	c'	c''	간주	b''	후주	
마디	1- 4	5- 12	13- 20	21- 30	29- 31	32- 40	39- 44	45- 52	53- 60	61- 68	68- 71	72- 79	79- 83	
조성	A-C#-F#-A							A						
박자	4/8													
빠르기	Sehr zart und anmutig													

‘한 해 내내 봄’의 선율부는 독일어의 억양을 살리기 위해 대부분의 프레이즈가 강박을 피한 뒤 약박에서 시작한다. 반주부는 곡 전체가 하나의 반주형으로 되어 있다.

〈악보 25〉 ‘한 해 내내 봄’ 반주형



(가) A 부분 (마디 1-44)

전주는 마디 1-4 이고 마디 4 는 16분음표가 오른손 왼손이 번갈아 나오는 리듬형이 나오는데 이 리듬형은 가사에서 꽃에 관련된 내용이 나올 때만 나와 봄에 피는 꽃의 모습을 표현해주며 선율부의 시작을 준비해준다. 화성은 A장조의 V9화음과 IV6화음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으뜸화음이 지연되다가 마디 5에서 비로소 I 화음이 나온다.

a(마디 5-12)와 a'(마디 13-20)의 선율부는 한 행이 4마디로 되어 있는 매우 규칙적인 구성이다. 이 곡은 프레이즈마다 강박에서 쉼표를 취한 뒤 약박에서 시작한다. 마디 5에서 Das Beet(그 화단)의 낭송 속도를 표현하기 위해 앞뒤로 쉼표를 사용하고 있다. 마디 5부터 마디 8까지 시어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Höh(높은 곳)까지 상행하고 있다.

반주부는 전체적인 음역대가 높아 선율부의 음정이 반주부 안으로 들어와 있는 구조이다. 마디 13-16은 가사에서 Safran entfaltet gewaltge Glut(샤프란은 이글이글 세찬 불을 한껏 피우고)가 나와 반주부에서 크레센도되어 메

조포르테까지 커진다. 마디 16에서 Safran(샤프란)⁶⁹의 색감을 묘사하는 가사가 나오기 때문에 C#장조로 전조된다.

〈악보 26〉 ‘한 해 내내 봄’ 마디 1-20

Sehr zart und anmutig *p*

Das beet

immer *pp*

16분음표 교차 리듬

6 A: V₉ IV₆ V₉ IV₆ V₉ I

schon lok - kert sichs in die Höh! 시어 표현 Da wan-ken Glöck - chen so

immer staccato

11 weiß wie Schnee: Saf - ran ent - fal - tet ge - walt - ge

cresc.

69) 샤프란: 붓꽃과 꽃으로 꽃은 연한 자주 색이고 암술은 빨간색이다. 땅에 붙어서 녹색 잎과 함께 자란다.

볼프는 소재의 특징을 표현하기 위해 리듬에서 변화를 주기도 하는데, 마디 21-24에서 앵초(Primeln)⁷⁰⁾의 양증맞은 특징을 표현하기 위해 붓점 리듬을 사용하였고 마디 27에서 Veilchen(제비꽃)의 작은 모양새 때문에 8분 음표를 사용하였다. 반주부에서도 꽃들의 모양새와 색깔을 표현하기 위해 전조를 사용하였다. 앵초가 나오는 마디 20에서 F#장조로, 제비꽃이 나오는 마디 25-28는 F#장조 안에 있지만 부속화음을 사용하여 새로운 색깔을 만들었다.

〈악보 27〉 ‘한 해 내내 봄’ 마디 21-31

70) 앵초: 뿌리줄기는 짧고 붉은빛이 강한 자주색으로 피고 매우 작다.

26
 haf - te Veil - chen, ver - steckt mit Fleiß;
 (8^{va})
 26
 F#: V_5^6/ii V/V V A: iii V7
 p cresc. mf

b' 부분(마디 32-40)의 선율부에서는 이 곡의 최고음인 A가 나오는데 genug, der Fröling, er wirkt und lebt(요컨대, 봄, 봄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라는 문장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선율부와 마찬가지로 반주부 마디 36-40는 점점 크레센도되어 선율부에서 최고음 A가 나올 때 반주부에서 포르테시모가 나온다. 그리고 간주가 나와 데크레센도되어 피아노까지 줄어들며 A 부분을 정리해주고 있다.

선율부와 반주부를 모두 살펴보았을 때 볼프가 genug, der Fröling, er wirkt und lebt.(요컨대, 봄, 봄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를 A 부분의 정점으로 설정해 놓은 것을 알 수 있다.

〈악보 28〉 ‘한 해 내내 봄’ 마디 32-44

32 was auch noch al - les da regt und webt, ge-nug, der Früh - ling, er
(8^{va})

32 *p* *cresc.*

38 최고음
wirkt und lebt.
(8^{va})

38 *f* *ff* *p* 셈여림의 변화

(나) B 부분 (마디 45-83)

마디 45-68(b, b', b"부분) 선율부는 특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데 각 프레이즈의 끝 부분을 보면 마디 45-48가 끝나는 blüht(꽃이 피다)의 음정은 순차 하행을 하고 마디 49-52의 어미부분인 Gemüt(마음)는 도약 상행한다. 이렇게 교차로 한 프레이즈는 순차 하행, 다음 프레이즈는 도약 상행 한다. 이 부분은 ‘내면적으로’(innig)라는 지시어가 나오는데 이는 시의 내용이 꽃과 계절에서 사람의 마음과 사랑으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반주부 또한 A부분과는 다르게 ‘부드럽게’(weich)라는 지시어가 나오고 반주부의 전체적인 음역대로 떨어져 왼손 위에 선율부가 위치해 있다.

〈악보 29〉 ‘한 해 내내 봄’ 마디 45-52

45 *innig* 순차 하행
Doch was im Gar - ten am reich - sten blüht,

45 *weich*
반주부 왼손 음역대 떨어짐

49 도약 상행
das ist des Lieb - chens lieb - lich Ge - müt.

마디 68-71은 간주이고 전주와 같이 꽃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음형을 사용하였다. 선율부는 마디 69-71에서 쉼표를 사용하고 있는데 마디 71에서 다시 꽃과 계절에 대한 내용으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반주부도 다시 원래의 반주형으로 돌아오고 음역대도 다시 돌아오는데 이는 시의 내용이 내면적이고 사랑에 관한 내용에서 식물과 계절로 다시 변화했기 때문이다. 후주는 A장조의 V 화음-I 화음을 사용하여 정격종지로 끝내고 있다.

〈악보 30〉 ‘한 해 내내 봄’ 마디 68-83

68 전환

Scherz Wenn Ros und

68 *pp* *gr* *p*

음역대 상승

73

Li - lie der Som - mer bringt, er doch ver - ge - bens mit

73 *(gr)* *cresc.* *f*

78

Lieb - chen ringt.

78 *p* *pp* *p rit.* *gr*

A: ii7 V I

5) ‘아나크레온의 무덤’

(1) 시 분석

Anakreons Grab

Wo die Rose hier blüht, wo Reben um Lorbeer sich schlingen,
Wo das Turtelchen lockt, wo sich das Grillchen ergötzt,

Welch ein Grab ist hier, das alle Götter mit Leben
Schön bepflanzt und geziert? Es ist Anakreons Ruh.

Frühling, Sommer, und Herbst genoß der glückliche Dichter,
Vor dem Winter hat ihn endlich der Hügel geschützt.

아나크레온의 무덤

여기 장미꽃이 피고, 포도 넝쿨이 월계수 나무를 휘감는 곳,
작은 비둘기가 유혹하고, 귀뚜라미 즐겁게 노는 곳,

여기 누구의 무덤인가? 모든 신들이 생명을
아름답게 심어 놓고 장식하였네. 그것은 아나크레온의 안식.

행복한 시인은 봄, 여름, 가을을 누렸고,
이제 겨울을 맞아 언덕이 그를 지키고 있네.

괴테는 시 ‘아나크레온의 무덤’을 1813년에 작시하였다. 기원전 6세기 경 그리스의 시인인 아나크레온⁷¹⁾을 추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시이다. 독일 시는 ‘각운’(Endreim)이 즐겨 사용되지만 고대 독일 문학에서는 ‘두운법’(Stabreim)이 즐겨 사용되었는데, 이 시의 1연은 시작부분이 모두 ‘wo’로 시작하는 ‘두운법’으로 되어있다. 이 시는 3연으로 되어 있고 각 연들은 2행으로 이루어져 있는 ‘a,b,a,c,d,b’의 구성이다.

71) 아나크레온: 쾌락적인 사랑과 술을 즐겨 노래하고 풍자와 해학에 매우 능했던 위대한 시인

〈표 22〉 ‘아나크레온의 무덤’ 각운의 운율

단락	단어	각운	기호
1	schlingen	-en	a
	ergötzt	-zt	b
	Leben	-en	a
	Ruh	-uh	c
	Dichter	-er	d
	geschützt	-zt	b

(2) 음악 분석

이 곡은 1888년 11월 4일에 작곡 된 곡으로, 《괴테 가곡집》의 29번째 작품이다. 또한 이 곡은 1893년 11월 13일 오케스트라 곡으로 편곡되기도 했다.

총 21마디의 가곡이며, 빠르기는 ‘매우 느리고 유유하게’(Sehr langsam und ruhig)로 지시한다. 박자는 12/8이고 조성은 D장조이다. 이 곡은 A(간주+a)-B(b)-A'(간주+a)-후주 로 되어 있다. 각 부분의 마디 수는 후주를 제외하고 6마디씩 동일하다.

〈표 23〉 ‘아나크레온의 무덤’ 의 구성

형식	A		B	A'		후주
마디	간주	a	b	간주	a'	
	1-2	3-6	7-12	13-14	15-18	19-21
조성	D		a-B _b -c-G	G-D		D
박자	12/8					
빠르기	Sehr langsam und ruhig					

(가) A 부분 (마디 1-6)

전주는 마디 1-2로 볼프는 이 곡의 첫 화음으로 D장조의 $vii^{\circ}7$ 을 사용하였다. vii 화음은 그 자체로 긴장감이 높고 불안정하며 I 화음으로 해결되려는 성격이 강한 화음으로 곡의 처음에 이 화음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이다. 이는 볼프 가곡의 대표적 특징인 불협화음의 사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악보 31〉 ‘아나크레온의 무덤’ 마디 1-2

Sehr langsam und ruhig

D: $vii^{\circ}4_2$ I_4^6 ii_5^6 $vii^{\circ}7$ I - 6 V - 7

마디 3-6의 선율부는 무덤 주위의 풍경을 묘사하는 부분으로 ‘zart’(부드럽게)라는 지시어가 나온다. 2마디에 1행이 들어가는 규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 선율은 한 마디에 한 프레이즈로 되어 있고 아치형 선율을 가지고 있다. 각각의 프레이즈는 똑같은 음을 나열하다가 상행 또는 하행하고 마지막 동사가 나오는 부분 즉, blüht(꽃피다), schlingen(휘감다), lockt(유혹하다), ergötzt(즐기다)에서 2도 하행한다. 그리고 각 프레이즈에 나오는 명사 즉, Rose(장미), Lorbeer(월계수), Turtelchen(비둘기), Grillchen(귀뚜라미)를 제일

높은 음에 배치해 놓았다.

반주부는 각 프레이즈마다 묘사하는 시어에 따라 진행된다. 마디 3는 선율부와 반주부의 1번째 성부가 유니즌을 이루고 있고, Rose(장미꽃)의 묘사로 반주부에서 8분 음표 음형이 하행하고 있다. 마디 4는 선율부와 반주부의 2번째 성부가 유니즌을 이루고 있고, Lorbeer(월계수)의 묘사로 반주부에서 8분 음표 음형이 하행하고 있다. 마디 5는 선율부와 반주부의 1번째 성부가 교차되어 나타나고 있고, Turtelchen(작은 비둘기)의 묘사로 반주부에서 8분 음표 음형이 아치형으로 나온다. 마디 6에서는 Grillchen(귀뚜라미)가 우는 것을 묘사해주는 음형이 나온다.

〈악보 32〉 ‘아나크레온의 무덤’ 마디 3-6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two systems. The first system covers measures 3 and 4. Measure 3 starts with a vocal line marked 'zart' and a piano accompaniment. The piano part has a descending eighth-note pattern in the right hand. The second system covers measures 5 and 6. Measure 5 has a vocal line and piano accompaniment. The piano part has a descending eighth-note pattern in the right hand. The lyrics are: 'Wo die Ro-se hier blüht, wo Re-ben um Lor-beer sich schlin-gen, 묘사 wo das Tur-tel-chen lockt, wo sich das Grill-chen er-götzt, 묘사'. The piano part includes markings like 'zart' and 'sehr zart'. There are boxes around the notes in the vocal line and the piano accompaniment, and arrows pointing from the vocal line to the piano accompaniment.

(나) B 부분 (마디 7-12)

B 부분은 A 부분보다 한 행이 넓게 분포되어 2행이 6마디에 걸쳐 나오고 있다. B 부분은 음의 길이를 연장시킴으로서 중요한 단어를 강조하고 있다. 마디 8의 Leben(생명), 마디 11의 Anakreons Ruh(아나크레온의 안식처)가 그러하다. 마디 7-8는 선율이 반음계 하행하다가 순차 상행 진행하며 크레센도되어 Grab(무덤)과는 대조되는 Leben(생명)이라는 단어에서 정점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마디 11-12는 Es ist(그것은)다음에 바로 문장이 이어지지 않고 한 박자 쉬고 Anakreons Ruh(아나크레온의 안식처)라고 말함으로서 누구의 무덤인지를 강조해주고 있다.

반주부는 반음계 진행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반주부의 4개의 성부가 각자 대위법적으로 진행하며 반음계 진행이 도드라지게 나타난다. 조성은 a단조에서부터 B♭장조-c단조-G장조까지 잦은 전조가 일어나며 비화성음의 사용과 반음계의 사용으로 조성감이 모호해지다가 선율부에서 Es ist Anakreons Ruh(그것은 아나크레온의 안식처)라는 가사가 나오면서 G장조로 마무리 된다.

반주부와 선율부 모두 가사에서 질문을 던질 때 반음계 진행의 사용과 경과음들의 사용을 통해 조성을 모호하게 하였고, 이 곳이 아나크레온의 안식처라는 대답이 나올 때 비로소 완전한 화성을 사용하여 안정감을 주었다.

〈악보 33〉 ‘아나크레온의 무덤’ 마디 7-12

7 *p* 반음계 하행 순차 상행

welch ein Grab ist hier, das al - le Göt - ter mit Le

7 *pp* 반음계 진행 *cresc.*

9 *pp* *pp* *pp* *pp* *pp* *pp* *pp*

ben schön be - pflanzt und ge - ziert?

9 *mf* *mf* *p*

Bb: V₅ I vii^{o5} V₅/Eb C: V₅ i 6

11 *pp* *pp* *ppp*

Es ist A - na - kre - ons Ruh.

11 *pp* *ppp*

c: i 6 G: Ger.6 I₅ V7 I

(다) A' 부분 (마디 13-18)

간주는 전주와 유사한 음형을 가지고 있으며 전조를 통해 G장조에서 원조인 D장조로 자연스럽게 돌아온다.

선율부는 마디 16 glücklich(행복한)과 마디 17 endlich(마침내)의 리듬을 연장하였다.

볼프는 슈베르트의 영향을 받아 시의 배경 또는 분위기를 반주부에 표현하였는데⁷²⁾ A' 부분은 A 부분의 반주부를 사용하여 무덤 주위의 풍경을 한번 더 묘사해주고 있다.

〈악보 34〉 ‘아나크레온의 무덤’ 마디 13-18

13 A부분 반주부 차용

간주

p Frühling, Sommer und Herbst ge-noß —

p *mf* *p* *pp*

G: vii^{o4}₂ I ii⁶₅ D: V⁶₅ V⁴₃/V Ger.6 V - 7

16 der glück-liche Dich-ter vor dem Win-ter hat ihn end-lich der Hügel geschützt,

pp

72) 김미애, 『독일가곡의 이해』, 163.

(라) 후주 (마디 19-21)

후주 또한 각 성부에서 반음계 진행이 도드라지게 나타난다. 1번째 성부는 A-G#-G-F#으로 반음계 하행하다 D장조의 3음인 F#에서 머물다가 5음인 A로 끝나고, 2번째 성부는 근음인 D음을 유지시켜주는 가운데 그 안에서 B-B \flat 으로 반음계 하행한다. 3번째 성부는 B-B \flat -A-G#으로 반음계 하행하다가 5음인 A음을 유지시킨 상태에서 G#-G로 또다시 반음계 하행한다. 베이스 성부는 이 곡 전체 조성인 D장조의 으뜸음 D를 페달포인트(Pedal Point)으로 사용하여 종지까지 지속한다. 이렇게 후주는 전체적인 화성은 D장조의 I 화음이지만 반음계와 비화성음을 사용하고 있다. 악상은 피아니시모에서 피아니시시모까지 줄어들며 사라지듯이 곡이 마무리 된다.

<악보 35> ‘아나크레온의 무덤’ 마디 18-21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two systems of staves. The first system covers measures 18 and 19. The right hand (treble clef) has a descending chromatic line: A4, G#4, G4, F#4, E4, D4. The left hand (bass clef) has a steady bass line on D3, labeled '페달 포인트' (Pedal Point). Dynamics include *pp* and *dim.*. A box labeled '반음계 진행' (Chromatic progression) highlights the right hand's movement. The second system covers measures 20 and 21. The right hand continues the chromatic line: C4, B3, A3, G3, F3, E3. The left hand continues the bass line on D3. Dynamics include *ppp*. The word *verklingend* (fading) is written above the right hand's notes.

III. 결 론

볼프는 1888년부터 1890년 사이에 많은 가곡을 작곡하였으며, 이 중 《괴테 가곡집》에 들어있는 ‘꽃의 인사’, ‘매정한 아가씨’, ‘마음이 풀린 아가씨’, ‘한 해 내내 봄’, ‘아나크레온의 무덤’은 서정시에 의한 가곡 작곡에 있어 볼프의 음악적 특징을 잘 나타내준다.

‘꽃의 인사’는 1888년 12월 31일에 작곡되었다. 이 곡은 2개의 단락으로 나뉘며 A-후주의 형식으로 구성되고 낭창법의 사용이 특징이다. A 부분은 개리 위치에서 밀집위치로 가는 반주형 반복으로 꽃을 든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하기 위해 인사하는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다. 후주 부분은 A 부분의 반주형에서 십표가 사라진 형태로 곡을 마무리 지어준다.

‘매정한 아가씨’는 1889년 10월 21일에 작곡되었다. 이 곡은 3개의 단락으로 나뉘며 A-B-A'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곡은 ‘양치기 소녀’와 ‘터르시스’ 그리고 ‘양치기 소녀가 부르는 노래’에 따라 반주형이 3개로 나뉜다. 화성은 시에 어울리는 화성을 자유롭게 사용하여 잦은 전조와 반음계 진행이 나타난다. 이 곡은 완만한 선율선을 가지고 있고 시어를 강조하기 위해 리듬을 연장하기도 하였다.

‘마음이 풀린 아가씨’는 1889년 2월 12일에 작곡되었다. 이 곡은 A-B-A'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정한 아가씨’와 구성이 매우 유사하다. ‘매정한 아가씨’와 유사하게 ‘나’와 ‘다몬’ 그리고 ‘다몬의 피리소리’에 따라 반주형이 3개로 나뉜다. A 부분과 A' 부분은 화성 변화가 거의 없고 정적이고 B 부분은 다몬과 사랑을 나누는 부분으로 A 부분에 비해 전조가 많고 반주부 왼손에서 나오는 반음계 진행이 특징적이다.

‘한 해 내내 봄’은 1888년 12월 21일에 작곡되었다. 총 2개의 단락으로 나뉘며 A-B의 통절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곡 전체가 하나의 반주형으로 되어 있

고 반주형의 리듬과 음형 변화 그리고 화성의 변화로 단조로움을 피하고 있다. A 부분은 잦은 전조와 리듬변형을 통해 꽃의 캐릭터와 색감을 표현해주고 있고, B 부분은 하나의 조성을 사용하여 봄에 피는 아름다운 꽃들보다 아름다운 것은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본 논문의 마지막 곡인 ‘아나크레온의 무덤’은 1888년 11월 4일에 작곡되었다. 총 4개의 단락으로 나뉘며 A-B-A'-후주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A 부분, B 부분, A' 부분은 모두 6마디씩 구성되어 있어 곡의 균형을 맞춰주고 있다. A 부분과 B 부분이 대조가 확실한데, A 부분은 가사를 반주부에서 받아서 묘사해주고 있고, B 부분은 반음계 진행의 사용으로 가사와 하나가 되어 곡이 전개된다. 마지막 후주는 반음계의 사용으로 점점 사라지듯이 끝이 난다.

볼프의 《괴테 가곡집》 중 서정시에 의한 가곡에 나타난 주요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볼프는 독일어의 강세와 리듬을 살려 가곡을 작곡하였다. 이것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낭창법을 주로 사용하였는데, 낭창법이란 말하는 것처럼 시어의 호흡과 말들의 높낮이를 살려 노래하는 방식이다. 또한, 볼프는 선율은 대부분 단순한 리듬으로 작곡하였고 시어를 강조하기 위하여 리듬을 변형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그는 시어를 표현하기 위해 붓점 또는 꾸밈음을 사용하기도 하고, 리듬을 연장시키기도 하였다. 그리고 반음계 진행을 통해 시어를 섬세하게 표현하였다.

두 번째, 볼프는 가곡의 반주부를 중시하였는데 시에 나타난 소재의 특징을 피아노 반주를 사용하여 묘사하였다. 볼프 가곡의 반주부의 유형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통일된 반주형을 악곡 전체에 사용하는 유형이다. 이 경우 시의 내용에 따라 음형에 변화를 준다. 두 번째는 등장인물들이 고유한 반주형을 가지고 내용의 변화에 맞추어 사용되는 유형으로, 바그너가 즐겨 사용했던 라이트 모티브 기법을 축소하여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볼프는 바그너의 오페라에서 나타나는 화성적인 특징에 영향을

받아 반음계 진행, 비화성음과 불협화음 등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전조하거나 관련성 없는 조성으로 전조하여 전통적인 전조 방식으로부터 벗어난 방식을 사용하였다. 특정 장면이나 분위기,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해 전조를 하였고, 이야기의 진행 또는 선율부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불협화음과 반음계 진행을 하였다.

볼프는 《괴테 가곡집》의 서정적인 시에 단순하고 통일된 반주부를 사용하여 작곡하였고, 시어의 의미 그리고 시어의 억양과 리듬에 집중하여 섬세하게 선율부를 작곡한 것을 볼 수 있다.

참 고 문 헌

〈국내 저서 및 논문〉

- 강두식. 『괴테의 생애와 문학』. 서울: 박영사, 1981.
- 강의숙. “F. Schubert와 F. Mendelssohn의 가곡 〈Suleika〉 예술적 비교 분석.”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고익환. 『독일문학사』. 대구: 대구대학교 출판부, 1996.
- 김미애. 『독일가곡의 이해』. 서울: 삼호출판사, 1998.
- 김성곤. 『독일문학사』. 서울: 도서출판 경진, 2009.
- 김성원. “Franz Schubert의 가곡 〈Ganymed〉와 Hugo Wolf의 가곡
〈Ganymed〉의 반주 비교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김아영. “괴테의 시 「그 나라를 아시나요」에 의한 베토벤, 슈베르트, 리스트,
슈만, 볼프의 가곡 비교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김윤혜. “Hugo Wolf의 오케스트라 가곡 연구: 괴테의 시에 의한 4개의 곡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김종홍. “Goethe의 시 〈Kennst du das Land〉를 중심으로 한 고전. 낭만 작곡
가들의 음악어법 비교분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김혜연. “볼프의 〈이탈리아 가곡집〉에 여성적 성격의 분류에 따른 연구.” 성신
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사공정. “F. Schubert와 C. Loewe의 가곡 〈Erlkönig〉 F. Schubert와 H. Wolf
의 가곡 〈Ganymed〉의 분석.”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서석연. 『질풍노도시대의 괴테의 서정시 연구』. 서울: 삼광출판사, 1987
- 윤상희. “H. Wolf의 Mignon I, II, III과 Kennst du das Land에 나타난 시와
음악의 관계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이가람. “괴테 시에 의한 Hugo Wolf의 세 개 가곡 Suleika에 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이경숙. 『예술가곡의 이해』. 서울: 선우미디어, 2003.
- 이상기. 『괴테, 불멸의 사랑』. 서울: 도서출판 푸른숲, 1999.
- 이지민. “Hugo Wolf의 「Italienisches Liedebuch」 중 5곡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전영애. 『괴테와 발라데』.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7.
- 진회숙. 『음악사를 움직인 100인』. 서울: 청아출판사, 2013.
- 피종호. 『아름다운 독일시와 가곡』. 서울: 자작나무, 1999.
- 한국 괴테 협회. 『괴테 연구』.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83.
- 홍세원. 『서양음악사』.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0.

<번역 서적>

- Friedenthal, Richard. 『괴테의 생애와 시대』. 광복록 역. 서울: 평민사, 1985.
- Goethe, J. W. v. 『서동 시집』. 김용민 역. 서울: 민음사, 2007.
- _____. 『헤원세계시인전1 괴테』. 김중연 역. 서울: 헤원출판사, 1987.
- _____. 『괴테 명시선』. 김희보 역. 서울: 종로서적, 1988.
- _____. 『괴테 시집』. 송영택 역. 서울: 문예출판사, 2015.
- _____.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 1』. 안삼환 역. 서울: 민음사, 1999.
- _____. 『괴테 시 전집』. 전영애 역. 서울: 민음사, 2009.
- _____. 『서동 시집』. 최두환 역. 서울: 시와 진실, 2002
- Gorrell, Lorraine. 『19세기 독일 가곡』. 심송학 역. 서울: 음악춘추사, 2003.
- Kimball, Carol. 『Song 하권』. 채은희 역. 서울: 형설출판사, 2003.
- Meister, Barbara. 『예술가곡개론』. 이경숙 역. 서울: 지문사, 1990.

Reuter, Evelyn. 『프랑스 가곡과 독일 가곡』. 국민음악연구회 역. 서울: 삼호출판사, 1976.

Rolland, Romain. 『괴테와 베토벤』. 박영구 역. 서울: 웅진닷컴, 2000.

Rostand, Claud. 『독일음악』. 국민음악연구회 역. 서울: 국민음악연구회, 1976.

Stevens, Denis. 『성악문헌』. 대한음악저작연구회 역. 서울: 삼호출판사, 1986.

<외국 저서 및 논문>

Grauert, Amanda. *Hugo Wolf and the Wagnerian inherita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Kimball, Carol. *Song: A Guide to Style & Literature*. Nevada: University of Lasvegas, 1996.

Newmann, Ernest. *Hugo Wolf*. New York: Dover Publications, 1996.

Youens, Susan. *Hugo Wolf: The Vocal Music*.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음악 사전>

세광음악출판사 사전편찬위원회. 『음악대사전』.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90.

Sams, Eric. "Wolf, Hugo" in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Vol.20, ed. Stanley Sadie. London: Macmillan Publishers Ltd, 1980.

ABSTRACT

Study on Wolf's «Goethe Lieder»

-Mainly on the Five songs to lyrical poems (No.24, 26, 27, 28, 29)-

Ko, Young hwi

Department of Collaborative Piano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Hugo Filipp Jakob Wolf(1860-1903), Germany's representing late Romantic composer wrote approximately 250 art songs. Wolf composed collection of songs to poems by Joseph von Eichendorff(1788-1857), Eduard Mörike(1840-1875), Johann Wolfgang von Goethe (1749-1821) and others' and achieved the peak of German art songs. «Goethe Lieder», one of Wolf's collections of songs was written between years, 1888-1889 and presents Wolf's various musical vocabularies. Poems contained in «Goethe Lieder» vary from poems of characters in 『Wilhelm Meister's Apprenticeship』, wittiness in 『West-Eastern Divan』, poems Goethe exchanged with his actual lover Marianne von Willemer(1784-1860), gods and heroes appearing in myths, and more.

This paper firstly looks into Goethe's life and main works, Wolf's life and representing collection of songs, general characteristics of Wolf's songs in his representing collection of songs and extracted five songs(No.24, 26,

27, 28, 29) written by «Goethe Lieder»'s lyrical poems to analyze the poem and music. These songs used declamation and chromatic progression to express German accent and rhythm, and transformed the rhythm to emphasize the poetic language. Furthermore, the accompaniment itself is given unity while to express the features of the background, atmosphere, person or object in the poem, frequent changes of the tonality, chromatic progression, discord and etc. is used to escape the traditional composition framework and construct Wolf's own unique music world.

Wolf strived to achieve a complete combination of the poem and music through all musical elements based on traditional techniques, however greatly developed German art songs through his new musical language.